

남도의 향

To design Jeon-nam
2012 Vol.02

Contents



04 CEO 메시지 - 전남은 '오래된 미래' 다

열정으로의 여행

- 06 지중해를 경도에 옮기다 _ 여수경도 골프&리조트
- 10 한옥호텔 '영산재'에서의 하룻밤
- 14 현장출동 _ 제1회 노동조합위원장배 탁구대회
- 16 한옥호텔 '영산재'에서의 하룻밤
- 20 우팀소 _ KIC사업단
- 23 JNDC 지금 _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
- 24窓이 만난 사람 _ 'EXR팀106' 류시원 감독
- 28 공 하나로 뭉친 그들 _ 축구동호회 JFC

깊이로의 여행

- 30 전남의 재발전 1 _ 남도답사 1번지 강진
- 34 전남의 재발전 2 _ 뽕숯, 소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37 사투리 속으로 _ '짠하다'
- 38 전남의 재발전 3 _ 섬진강 자전거도로

희망으로의 여행

- 42 희망나눔 _ 제1기 대학생홍보기자단
- 44 신입사원 인터뷰 _ 열정으로 꿈을 열다
- 47窓톡톡! 설문조사 _ 남직원·여직원 속마음 '대폭발'
- 50 나의 하루 _ 사소한 하루가 모여 행복이 핀다
- 52 인터뷰 _ 내 꿈은 설득의 달인
- 53 골프 Tip _ 남악골프클럽 정승연 프로가 전해주는 노하우
- 54 클릭건강 _ 다이어트에 관한 10가지 거짓말
- 56 JNDC NEWS
- 58 세계인의 스피드축제 더

To design Jeon-nam 2012 Vol.02

발행인: 사장 김주열
 발행일: 2012년 9월
 발행처: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후광대로 242
 (남악리 2074번지) www.jndc.co.kr
 편집인: 홍보감사실
 기획·디자인: 정원애드 (www.jwad.co.kr)



“
전남은
‘오래된 미래’ 다!!
”

저는 전남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들 속에서 ‘오래된 미래’를
봅니다. 전남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기회의 땅입니다.

전남개발공사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전남의 잠재가치를 찾아내 미래가치로 디자인하는 우리는 매일 새로운 꿈을 꾸니다. 1년 전
사보를 내며 전남개발공사가 품었던 꿈과 1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꾸는 꿈은 같지만 다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남개발공사 역시 1년 전과 다릅니다. 1년 만에 다시 사보를 내며 저는
‘새로움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나’와 남들이 봐주는 ‘나’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절반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지향하는 미래가치 디자인은 새로움과 몸을 섞을 때 커다란 파장을 일으
킵니다. 우리가 나날이 새로워질 때 사람들이 전남개발공사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애착의
마음이 담길 것입니다.

2004년 10월 전남개발공사가 첫걸음을 땀 때 자본금은 겨우 5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모두 25개의 굵직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비 규모만 2조 2000억
원에 달합니다. 장기적으로는 2020년 매출액 5000억원 달성을 꿈꿀 만큼 성장했습니다. 우
리가 매일 새로운 꿈을 꾸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성과입니다.

저는 전남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들 속에서 ‘오래된 미래’를 봅니다. 전남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기회의 땅입니다. 깨끗하게 보존된 천혜의 자연은 과거의 시간 속에 서
있지만 그 자연을 그대로 살려 부가가치 높은 관광자원으로 변모시키는 것은 미래의 영역
입니다. 아무리 큰 다이아몬드 원석도 가공을 거치지 않으면 그저 돌맹이에 불과합니다. 전남
역시 어떻게 디자인 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가족 여러분!

실패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포기입니다.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꿈을
꺾보지도 못하고 포기한다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공은 실패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기에 경도해양관광단지과 영암 F1 경기장, 한옥호텔인 ‘영산재’와 ‘오동재’의 눈에
보이는 성과가 매우 간절합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었고,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입니다. 이 사업들이 성과를 낸다면 전남개발공사는 새로운 가치 창조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꿈을 향해 뚜벅뚜벅 걷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실패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포기입니다.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꿈을 꺾보지도 못하고 포기한다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성공은 실패 속에서 태어납니다. 실패 속에서 성공을
건져내는 발상의 전환만이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합니다.

가족 여러분, 지난 8월 저는 가족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얻어 전남개발공사의 제4대 사장
으로 재임용 됐습니다. 저는 지나온 3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개발공사를 녹색의 땅에 꿈과
희망을 열어가는 ‘도민 속의 지속가능한 공기업’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남 도민과 통해야 합니다. 『주역』 ‘계사편’에 ‘궁즉변(窮即變), 변즉통
(變即通), 통즉구(通即久)’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 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걸어가면 먼저 전남 도민들과 통하고, 결국 전남은 오래
가는 ‘미래’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2012년 9월
전남개발공사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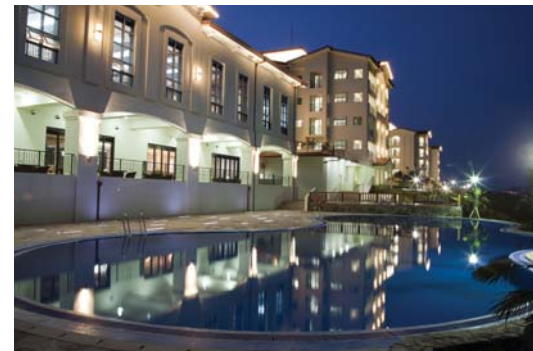
가복연



여수경도골프 & 리조트

지중해를 '경도'로 읊기다!

해가 지고 콘도미니엄에 하나 둘 불이 켜지면 아름다운 풍경이 연출된다.
 콘도에 켜진 불빛들이 맑은 바다에 반사된다.
 콘도는 지중해식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다.
 바다의 아름다운 서정을 담아낸 이국적인 공간 연출이다.



객실의 창을 열고
대면하는 풍경은
아름다움
그 자체다.
넓은 창으로 먼저
푸른 골프코스가
눈에 담기고,
시선이 더 먼 곳으로
향하면 바다에
닿는다.

꿈의 공간이 열렸다! 그 섬에 들어가면 해양 관광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완성된다. 지중해의 에메랄드 빛 바다 느낌이 살아있는 섬, 여수 경도. 섬 하나가 통째로 해양관광단지라 됐다. 지금껏 우리나라에 이런 시도는 없었다.

바람에게 길을 묻는 27홀 규모의 골프장이 생긴다. 모든 홀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씨(Sea) 사이드 코스'로 만들어진다. 이미 9홀이 완성돼 초청 라운딩을 갖었으며, 2012년 4월 그랜드 오픈한다.

경도의 거울처럼 맑은 바다 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골프&리조트'는 지중해식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다. 바다의 서정이 아름답게 살아있다. 여수 엑스포에 맞춰 먼저 100실을 개장했다. 모든 객실의 시선은 바다에 맞춰져 있다. 건물을 지형의 경사에 따라 배치해 객실에서 바다와 섬, 골프 코스를 조망할 수 있게 했다. 야외 수영장은 물빛이 아름답게 빛난다. 100면 규모로 지어지는 오토

캠핑장은 파도 바로 곁에 있다. 바다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섬'이 늘는다.

27홀 전체가 '씨(Sea) 사이드 코스'

경도는 섬이지만 육지와 가깝다. 면적은 2,33km²로 해안선 길이가 11.7km나 되는 도심 속의 섬이다. 여수 국동항에서 500m 떨어진 경도는 최적의 골프장 입지 조건을 갖췄다. 바람이 심하게 불지 않아 골프공의 흐름을 방해받지 않는다. 연평균 기온이 14.6도로 무척 따뜻하고, 겨울엔 눈이 거의 내리지 않는다. 사계절 라운드가 가능한 꿈의 영토다.

섬이지만 접근성도 무척 좋다. 여수 국동항에서 경도까지 약 500m의 바닷길을 연결할 양방향 차도형 여객선이 다녀 10분이면 오갈 수 있다. 총 승선인원 95명이며 승용차 16대 싣고 운행되는 247톤급의 차도형 여객선은 양방향 승하선식 방식으로 편리하고 안전하다. 회원제 27홀인 골프장은 세계적인 골프코스 설계회사 DMK골프

디자인과 SK건설 컨소시엄이 손을 맞잡고 국내 최초 아일랜드 골프장으로 짓고 있다. 모든 홀이 바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씨(Sea) 사이드 코스'다. 총 코스 길이가 1만804야드, 페어웨이 폭이 평균 60야드로 PGA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국제 규격을 갖췄다. 해송 숲과 바다를 넘나드는 9홀의 파인 코스는 골프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시원한 해풍과 지형 변화가 심한 9홀의 오션 코스는 골퍼들의 승부욕과 흥미를 자극한다. 완만한 구릉과 다도해를 배경으로 정확한 거리를 요구하는 9홀의 힐 코스에서는 색다른 골프를 즐길 수 있다.

에메랄드 빛 바다를 품은 콘도

해가 지고 콘도미니엄에 하나 둘 불이 켜지면 아름다운 풍경이 연출된다. 콘도에 켜진 불빛들이 맑은 바다에 반사된다. 콘도는 지중해식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다. 바다의 아름다운 서정을 담아낸 이국적인 공간 연출이다. 콘도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았다. 건물을 지형의 경사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했다. 그래서일 것이다. 모든 객실은 특별한 바깥 풍경을 담는다. 객실의 창을 열고 대면하는 풍경은 아름다움 그 자체다. 넓은 창으로 먼저 푸른 골프코스가 눈에 담기고, 시선이 더 먼 곳으로 향하면 바다에 닿는다. 그 바다 위에 다도해의 섬들이 촘촘히 박혀 있다. 콘도 앞 야외 수영장은 물빛이 살아있다. 거기 '뽕뽕' 몸을 담구면 지중해에 들어왔은 느낌이다.

끝이 아니다. 경도에는 2016년까지 골프빌라와 상업시설, 마리나 시설이 만들어진다. 호텔과 기업연수원, 테마파크 레저시설도 조성된다. 들어가면 여행의 모든 것이 단번에 해결되는 꿈의 해양관광 단지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남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러진 환상적인 분위기, 바다의한 가운데를 거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씨사이드 코스의 짜릿함, 숨겨진 듯 빛나는 매력으로 골퍼들을 유혹하는 곳, 최상의 고품격 시설과 서비스로 감동을 선사하는 골프장, 그곳이 여수 '경도 골프&리조트'이다.

내 안의 '거처' 를 만나다!

'영산재' 에서의 하룻밤



"그저 한옥의 형태를 흉내만 냈을 거라고 생각했다. 객실로 들어와 보니 아니었다. 대청마루와 마당까지 갖춰진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두 명의 처자가 한옥호텔 영산재를 찾았다. 한옥호텔의 마루에 앉아 저무는 해를 본다. 하루가 끝나는 시간, 구름 사이로 언뜻 보이는 해가 아름답다. 이제 어둠이 내릴 시간이다. 하루의 여름이 그렇게 지나갔다.

그러나 아주 간 것은 아니었다. 한옥호텔의 하루는 어둠 이후로부터 다시 시작됐다. 검은 적요 속으로 청명한 바람이 불어오고, 나뭇잎들이 서로 몸을 부딪치는 소리가 조용하게 들려왔다. 어둠 속의 한옥호텔이 환했다. '영산재' 에서의 하룻밤, 두 처자는 행복했다.

우리의 몸이 나온 곳이 한옥

한옥호텔에서 보낸 하루는 특별했다. 우리의 몸이 나온 곳이 한옥이다. 남의 것(아파트)이 주인이 되고, 원래의 집이 객의 형태로 밀렸으나 생활이 바뀌었다고 정신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었다. 한옥의 마루는 이 나라 사람들의 오랜 거처였다. 한옥호텔 '영산재' 에는 나무의 나이테 무늬와 윤기가 그대로 살아있는 마루가 있다. 마루 너머엔 마당도 있다.

한옥호텔의 첫 인상은 어땠을까? "안과 밖이 서로 통하고, 몸과 영혼이 엮이는 한옥의 형태를 영산재가 완벽하게 품어낸 느낌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영산강을 품은 전망이 무척 좋다." 김희정 씨의 첫 느낌이다.

'영산재' 는 문창살에 한지가 발라진 창을 열면 숨 막히는 풍경이 펼쳐진다. 창을 열자 먼저 청명한 공기가 밀려왔다. 저 멀리 최대한으로 몸을 벌린 영산강이 바다처럼 넓게 펼쳐졌다. 나락이 자라는 눈에서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하늘 위로는 달빛이 아주 천천히 걸어갔다. 잠깐 의문이 들었다. 이곳이 정말 호텔일까? 시골집에 누워있는 것처럼 몸이 아늑해졌다.

금방 저녁을 먹을 시간이 왔다. 호텔의 한식당으로 내려갔다. 영산재에서만 맛볼 수 있는 '뽕북국' 과 떡갈비, 조기구이가 덧붙여진 밥상이 나왔다. '뽕북국' 은 바다와 육지의 아름다운 만남이었다. 한우의 개운한 맛과 바다 해조인 '뽕' 이 만나 깊은 맛을 냈다. 답답하던 속이 확 풀렸다. 떡갈비는 한우의 육질이 고스란히 살아 있었다.



"안과 밖이 서로 통하고, 몸과 영혼이 엮이는 한옥의 형태를 영산재가 완벽하게 품어낸 느낌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영산강을 품은 전망이 무척 좋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

모든 게 놀라웠다. 처음 '영산재'를 먼발치에서 만났을 때, 민속마을 이거나 드라마 세트장인 줄 알았다. 규모가 궁궐 하나를 옮겨놓은 것처럼 거대했다. 먼저 의문이 들었다. 한옥의 뼈대를 그대로 옮겨 놓은 새로운 형식의 호텔, 그게 과연 현실에서 가능할까? '영산재'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의문이 풀렸다.

한옥호텔의 건물들은 전통의 한옥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 대들보는 거대한 소나무를 사용했다. 진한 소나무의 향기가 남아있고, 만지면 나무의 반질거리는 촉감이 손으로 건너온다. 서까래는 조금씩 휘어져 처마의 곡선이 유연하게 살아있다. 한옥호텔의 내부로 들어가면 더 완벽하다. 우리의 전통 한옥을 그대로 객실 안에 옮겨놓았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촘촘히 길을 내 객실 내부를 만들었다. 문은 모두 네모 반듯한 창살을 만들고, 전통 한지를 발랐다. 대청마루도 그대로 재현해 손님들이 편안하게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수 있게 했다. 대청을 나서면 마루가 있고, 뒷마루를 밟고 나가면 마당과 연결된다. 마당에선 아이들이 흙 놀이를 할 수 있다.

황해운 씨는 "그저 한옥의 형태를 흉내만 냈을 거라고 생각했다. 객실로 들어와보니 아니었다. 대청마루와 마당까지 갖춰진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대청마루에서 마신 차 한 잔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통의 가구도 놓여있었다. 각 객실에는 편백나무를 사용해 전통의 방식에 따라 소목장이 만든 장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 그 '편백장'은 하나를 만드는 데 250만 원이 들었다고 했다. 문을 만드는 데 사용한 나무 역시 편백나무였다. 왜 편백나무일까? 손님들의 건강을 생각해 친환경적인 소재를 고민했고, 그렇게 선택된 것이



편백나무였다. 편백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 몇 배나 많은 피톤치드를 발산한다. 피톤치드라는 물질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아토피를 비롯한 여러 피부 질환에 효능이 있다.

편백나무 향기, 불면증을 치유하다!

한옥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다. 사람이 원하는 집의 기온과 같다. 한옥의 주재료인 나무와 흙은 콘크리트처럼 단혀 있지 않다. 항상 열려 있으며 밖과 소통한다.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을 통해 흙과 나무는 숨을 쉰다. 사람도 숨을 쉰다. 흙과 나무 그리고 사람은 닮았다.

한옥호텔 '영산재'는 신기할 정도로 전통 한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 두 처자는 한옥호텔 마당을 오랫동안 서성였다. 해가 지자 마당을 감싸던 공기가 서늘하게 변했다. 달혀있던 의식이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마당은 방금 전 밝음 속에서 봤던 풍경과 전혀 달랐다. 한옥의 이미지들을 몸이 느꼈다. 마당의 몽글한 흙이 밟히는 느낌이 발로 전달됐다. 탁했던 눈도 맑아졌다.

한옥호텔 대청마루에 앉아 편백나무 향을 느꼈다. 도시의 삶은 '독(毒)'이라고 했던가? 틀린 말은 아닌 모양이었다. 몸이 느끼는 버거운 중압감은 그렇다 치더라도 마음이 여유를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편백나무 향이 몸을 맑게 했다. 삶의 무거운 여독들이 풀리는 느낌이었



다. 방에 누었다. 남의 거처에 살다가 오랜 만에 내 것으로 돌아온 느낌이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금방 눈이 감겼다. 원래 불면증이 심했는데 편백나무 향기 때문인지 오랜만에 편한 잠을 잤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이 치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김희정 씨의 말이다.

해가 뜨자 문풍지를 뚫고 은은한 햇빛이 호텔 방 안으로 들어왔다. 두 처자는 거뜬하게 몸을 일으켰다. 해가 뜨자 밝이 소란해졌다. 문을 열었다. 모든 것이 젓어 있었다. 밤새 내린 이슬들이 한옥호텔의 기와들을 적셔놓았다. 시원한 새벽 공기가 머리를 파고 들었다. 한옥호텔에서의 하루, 오랜만에 숙취 없는 편한 잠을 잤다. 아침 시간을 산책으로 보낸 두 처자는 아침을 먹고 '다도체험'을 했다. '영산재'에서는 모든 객실 손님들에게 무료 다도체험이 제공된다. 뜨거운 차가 몸으로 들어가자 몸이 따뜻해졌다. 꽃차도 마셨다. 찻잔에서 꽃향기가 은은했다.

어느덧 정오 무렵, 이제 돌아갈 일만 남았다. 두 처자는 입을 모아 말했다. "한동안 비린내 나는 소금집 같은 세상이 살아볼 만하겠다"고.





2012년 5월 23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신 분들^^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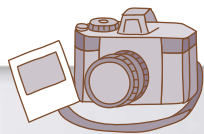
페어 플레이!! 페어 플레이!!



'슈웅~탁'

열정으로 날다~!

제1회 노동조합위원장배 탁구대회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공에 가장 무겁고 강한 열정이 담겼다. 급격한 회전이 걸린 드라이브가 탁구대를 가른다. 탁구공이 '슈웅' 소리와 함께 날아가 탁구대 가장자리에 '탁' 소리와 함께 정확하게 꽂힌다. 곳곳에서 탄성이 터진다. "저건 '코리아' 팀 현정화가 와도 못 막아! 그러나 성급한 판단은 금물, 강력한 맛드라이브가 펼쳐지고, 공은 다시 탁구대를 경쾌하게 가른다.

모두의 시선이 작은 공 하나에 집중된다. 5월23일 전남개발공사



必!勝!



금강산도 식후경!!



귀요미 막내



이기는 편이 내편 ^^



자, 내공을 받아랏!!!



공 하나, 하나에 집중, 또 집중~~ 그리고 목표는 우승!!!



에서 '제1회 노동조합위원장배 탁구대회'가 열렸다. 직경 40mm, 무게 2.7g. 불면 날아가는 작은 탁구공의 실세없는 움직임에 모두가 하나 된 하루였다. 1991년 분단 이후 최초로 결성된 탁구 남북 단일팀 '코리아'가 금메달로 남북의 화합을 이뤘다면, 전남개발공사 최초로 열린 탁구대회는 노·사의 소통을 이뤘다.



꼭! 이겨서 상금받아야징!!

생각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몸도 다른 '너'와 '나'가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같은 방향을 보는 '우리'가 되는 시간이었다. 작은 탁구공의 움직임에 따라 탄성과 아쉬움이 쏟아진다. 붉은 팜방울이 흐르고, 헉헉대는 숨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채운다. 편을 가리지 않는 직원들의 응원은 환호의 다른 이름이었다.



탁구공이 날고, 직원들의 열정이 함께 날았다. 전남개발공사 직원들은 그 동안 아무도 모르게 갈고 닦은 '탁구비급'을 하루 동안 모두 펼쳐 놓았으며 승패와 상관없이 빛나는 '탁구축제'를 연출했다. 멋진 스메싱에 사랑이 피었다.



감마 나 상머였어 ~!!!

나도 나도, 상 받았대구~!!!



세개 다.. 내꺼 하자 ~!!!



다 함께 하나가 된 '추억 씨앗'



2012 녹색전남 생태 & 문화 탐방

Eco 캐스터란

생태환경의 뜻을 지닌 Ecology의 Eco와
진행자나 해설자를 뜻하는 Caster의 합성어다.
녹색전남의 자연생태와 문화관광지를 즐기면서
자연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보고 느낀 점을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전달자를
의미한다.

'갯벌싸움' 이 벌어진다.

물경물경한 갯벌을 여기저기 집어던진다.

얼굴이 까맣게 변할수록

입가에 하얀 웃음이 반짝거린다.



갯벌 물은 까만 얼굴, 하얀 웃음이 반짝

뽕배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은 갯벌에 들어가기를 꺼려한다. 그러나 한두 명이 뽕배를 밀고 '썰' 나가자 술렁거린다. 뽕배 하나씩,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신이 났다.

'갯벌싸움' 이 벌어진다. 물경물경한 갯벌을 여기저기 집어던진다. 즐거운 비명소리가 터져 나온다. 얼굴이 까맣게 변할수록 입가에 하얀 웃음이 반짝거린다. 갯벌은 아토피나 여드름 등의 피부병에도 좋단다. 순천 별랑면 거차마을 뽕배체험장이다.

순천만 갯벌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거차마을 한 주민이 이곳 갯벌에 대해 설명해준다. 갯벌은 깊이에 따라 맛조개, 참고막, 새조개 등 나오는 곳이 다 다르다. 갯벌에 우뚝 박혀 있는 나무말뚝은 칠게를 잡기 위해서란다. 칠게는 낙지를 잡는 데 쓰인다고 한다. 아이들은 이처럼 놀면서 갯벌을 배운다.

여럿이 함께 걸으면 길은 더 많은 추억을 안겨준다. 길은 다른 세상과 즐겁게 만날 수 있는 통로다. 지난 8월8일부터 10일까지 2박3일, 전남 개발공사(이하 공사)에서 진행된 '2012 녹색전남 생태 & 문화 탐방' 이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올해 두 번째를 맞는 이 행사에 초·중·고교생 60명이 손잡고, 아름다운 동행에 참여했다. 아이들은 학교나 가족에서 벗어나 자연 속으로 들어와 즐겁게 뛰어 논다. 그들의 추억이 자연의 가치를 깨닫고,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알아간다. 이번 제2기 Eco캐스터 주제는 '그린 타임머신 투어'다. 전남에 살면





신나는
댄스타임

서도 우리가 생활하는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지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 공사는 옛날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던 모습을 보여주고, 몸으로 체험하게 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마주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살이를 보여준다.

나무액자 만들기, 떡매질, 과일 따기...

‘출발!’이라는 구호와 함께 자연 속으로 들어간다. 첫 만남은 곡성군 봉조마을 산골 체험장이다. 품 넓은 느티나무가 475년이나 마을을 지키고 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에서 물놀이, 옷은 흠뻑 젖었으나 기분은 하늘을 날듯하다.

산골체험장에서 아이들은 사진 찍기에 바쁘다. 세상에서 단 한 장뿐인 사진을 나무액자로 만드는 것이 오늘의 미션. 나무액자에 때죽나무를 잘라 꾸미기 정신이 없다. “내꺼랑 똑같이 하네”라는 중학생 여정이의

말에 초등학교 지우 녀석이 깜짝 놀란다. 두 눈만 껌벅거리는 동생, 동생 나무액자에 꽃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준다. 선생님은 신기한 얘기를 들려준다. 옛날에는 때죽나무 열매를 돌로 쪼개 냇가에 고기를 잡았다. 때죽나무에 마취성분이 있어 물고기가 잠시 기절해 물 위에 둥둥 떠서 그냥 주어내면 된단다.

하나, 둘 나무액자가 완성될 무렵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한다. 긴 원두막에 앉아 받은 밥상 위에는 삼겹살에 밥에서 탄 상추, 깻잎, 고추에다 된장까지 푸짐하다. 아이들은 자연과 농부의 정성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고 식사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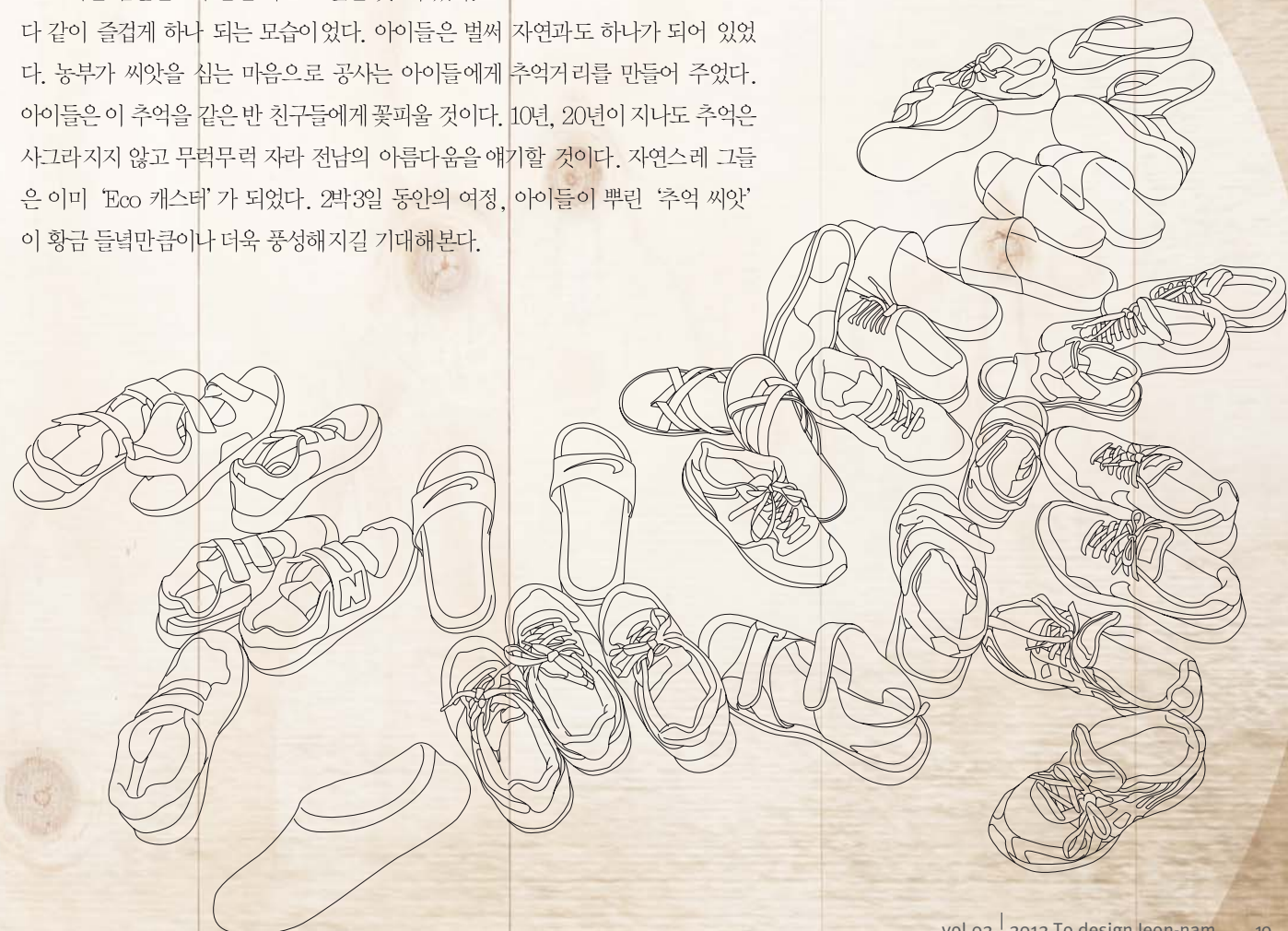
백일홍이 한창인 넓은 운동장에서 떡매질도 해본다. 쫄득한 인절미는 할머니가 썰기 무섭게 사라진다. 콩고물 묻은 얼굴에 어색하던 첫인상이 함박웃음으로 바뀐다. 키보다 높은 모닥불에 모여 산속 작은 음악회도 열렸다.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기타반주에 어깨가 춤추고 엉덩이가 들썩거린다.

우리는 'Eco 캐스터'

감자 구워먹기, 여름밤의 별 이야기, 과일 따기, 하루는 결코 길지 않았다. 모듬별장기 자랑은 '끼'의 경연장으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마지막 날 진행된 두륜산 케이블카 타기, 자연의 품은 푸르고 넓었다. 멀리 보이는 크고 작은 섬들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됐다.

다 같이 즐겁게 하나 되는 모습이였다. 아이들은 벌써 자연과도 하나가 되어 있었다. 농부가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공사는 아이들에게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었다. 아이들이 이 추억을 같은 반 친구들에게 꽃피울 것이다. 10년, 20년이 지나도 추억은 사그라지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 전남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것이다. 자연스레 그들은 이미 'Eco 캐스터'가 되었다. 2박3일 동안의 여정, 아이들이 뿌린 ‘추억 씨앗’이 황금 들녘만큼이나 더욱 풍성해지길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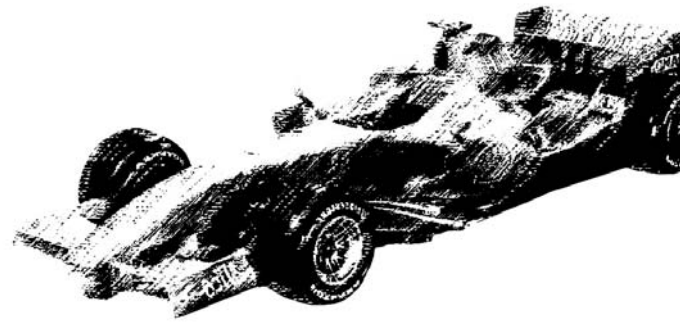
우리의 하루하루가 한국 모터스포츠의 역사

K.I.C.사업단

영암 F1경기장에 가까워지고 있다. 멀리서도 느낄 수 있다. 몸이 소리에 반응한다. 경주용 '머신' 들이 내는 굉음이 경쾌하게 공기를 가르다.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그 굉음은 속도의 다른 이름이며, F1의 상징이다.

1년 365일, 그 굉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경주용 '머신' 들이 질주할 때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조차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굉음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남개발공사의 'KIC사업단' 이다. 그들이 바로 국내 유일의 영암 F1경기장을 관장하는 사람들이다.

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를 떨게 만드는 속도는 위험과 연결되고 'KIC사업단' 직원들은 늘 긴장의 연속이다. 그 긴장을 삶의 활력으로 바꿔낼 수 있을 때, 'KIC사업단' 의 진정한 직원이 된다. 굉음 속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의 표정이 밝다. 모두들 자기 좋아서 하는 일이다. 하나 같이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고 속도의 매력에 열광한다. 일이 즐겁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에 한번 와 보기도 쉽지 않은 국제 규격 F1경기장이 그들의 일터다.



INTERNATIONAL CIRCUIT

1년 365일, 경주가 열린다!

해가 떴다. 영암 F1경기장의 하루가 시작됐다. 설레는 표정으로 선수들이 모여든다. 사실 우리나라엔 F1 선수가 없다. 그렇다고 모터스포츠 선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속도의 매력에 빠져 서킷의 질주를 꿈꾸는 카레이서들이 적지 않다. 그들은 매일 영암 F1경기장으로 집결한다.

영암 F1경기장은 1년에 딱 한 번 F1대회를 열기 위해 만들어진 경기장도 아니고, F1대회 때만 잠깐 문을 열고 운영되는 곳도 아니다. 그곳에서는 1년 내내 카레이서들의 질주가 계속된다. 국내의 크고 작은 모터스포츠 경주대회가 열리고, 레이싱팀들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서킷을 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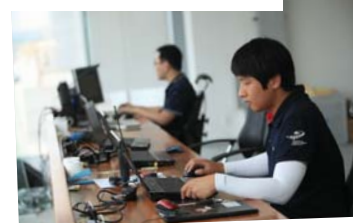
그 모든 고객들의 손과 발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KIC사업단' 직원들이다. 서킷 안에서는 규율이 엄격하다. 작은 실수는 곧 사고를 의미할 수도 있다. 예컨대 '국제규정 신호기' 를 드는 사람이 잠깐의 실

수가 났다. 영암 F1경기장의 하루가 시작됐다.

수로 잘못된 깃발을 든다면 어떻게 될까?

서킷 위의 모든 드라이버들은 직원의 신호기를 보고 서킷 위의 상황을 인지한다. 직원이 '황색기' 를 든다. '서킷이 위험하니 추월을 하지 말고 서행하라' 는 표시다. 그런데 실수로 위험 해제를 알리는 '녹색기' 를 든다면? 경기장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무수한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끔찍한 사고와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드라이버들이 제가 보낸 신호에 따라 통제되는 기분 아세요? 정말 끝내줘요. 근데 항상 긴장 속에 살아요. 위험요소가 많으니까요. 군대 다음으로 엄격한 규율은 사고에 대비하는 최고의 안전장치예요." 운영팀 나동률 사원의 말이다.



서킷, 달려봤어?

‘KIC사업단’ 최고의 매력은 ‘자부심’이다. 일반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을 매일 누리고 산다는 것은 충분히 매력적인 일이다. 카레이서가 아닌 이상 서킷 위를 질주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는가? 하지만 ‘KIC사업단’ 직원들은 속도 무제한 ‘꿈의 서킷’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달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린다.

김중운 사원은 “서킷을 달리는 기분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세상이 전부 내 것 같고, 속도에 몸을 맡기면 모든 잡념들이 사라지죠. 일을 하면서 그런 짜릿한 기분을 느끼는 사람이 세상이 몇이나 되겠



윤영국 단장



어요. ‘KIC사업단’에서 일하는 자체가 행복이죠”라고 말한다.

최고의 매력

은 ‘자부심’

영암 F1경기장은 주말이 더 바쁘다. 왜 아니겠는가? 이 나라에서 오로지 카레이싱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주말의 질주를 꿈꾸며 평일을 견뎌낸 고객들이 주말에 영암 F1경기장을 찾아 모든 생의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는 것이다.

서킷 위에 올라선 고객에게 주어진 시간은 25분, 빨리 달리면 그 시간 동안 서킷을 4번 돌 수 있다. 질주를 마치고 경주용 자동차에서 내리는 고객들의 얼굴은 더없이 밝고 환하다. 직원들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진다.



‘KIC사업단’은 운영국 단장을 포함해

16명의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16명이 전담하기에 영암 F1경기장은 너무 넓고 할 일은 많다. 영암 F1경기장은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공간이다. 경주용 자동차가 제 속도를 내려면 정확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서킷 정리를 끝마쳐야 한다. 잠깐의 미적거림이 또 사고를 낳는다. 누구나 방송시스템을 다룰 수 있고, 신호기만 가지면 전체 드라이버를 컨트롤할 수 있다. 모두가 멀티 플레이어라 되어야만 영암 F1경기장의 하루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무엇보다 ‘KIC사업단’ 직원들은 이전까지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공간을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

‘KIC사업단’ 운영국 단장은 “영암 F1경기장은 역동적인 공간이에요. 경주용 자동차들이 달리면서 품어내는 역동적인 엔진 굉음이 항상 울려 퍼지죠. 우리는 새로움의 매력에 늘 빠져 살아요. 우리가 일하는 하루하루가 한국 모터스포츠의 역사잖아요.”

모두가 멀티플레이어!

알아두면 실속 두 배, 재미 두 배

자동차의 굉음과 함께 영암을 뜨겁게 달굴 F1 코리아 그랑프리 세 번째 질주가 이제 곧 시작된다.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10월12일부터 14일까지 전남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에서 개최된다. 스피드의 절정을 즐기는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 알면 실속과 재미가 두 배다.

입장권 싸게 구입하는 방법 없을까?

F1 코리아 그랑프리 조직위원회가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 티켓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했다.

먼저 신용카드 할인. 지난해에 이어 F1 코리아 그랑프리 조직위원회는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와 함께 할인행사(일반회원 10%, 탑스회원 20% 할인)를 펼친다. 아무 조건 없이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온라인(옥션티켓과 C마켓 티켓) 결제 시 일반회원과 탑스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즉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스포츠 관람비용이 상대적으로 부담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도 저렴하게 대회를 즐길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관람 바우처 종목에 F1 코리아 그랑프리도 추가해 9월 초부터 시행한다. 관람바우처 카드 신청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F1 그랑프리를 관람할 수 있다.

기업 등이 대량으로 단체 구매 시에는 구매 금액별로 12~18%까지 특별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메인 그랜드스탠드 티켓을 제외한 나머지 티켓의 가격을 대폭 하향 조정했다. 또 다양한 할인혜택을 준비해 10만원 내외의 저렴한 가격에 F1 대회 관람이 가능하다.

규정을 알면 F1이 보인다!

F1은 팀 간의 격차 해소나 과도한 개발비 지출을 막기 위해 매년 세부 규정을 바꾼다. 2012 시즌부터는 다운포스(공기가 차를 내리 누르는 힘) 조절 장치인 오프-스토폴 블론 디퓨저가 금지된다. 디퓨저

는 차체 아래로 빠르게 흐르는 공기와 차체 뒤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공기가 잘 교환되도록 연결하는 부품이다. 공기의 흐름을 제어해 다운포스(공기가 차를 내리 누르는 힘)를 생성시키면 차량이 더욱 안정적으로 고속 주행을 할 수 있다.

백마커(1위 차량에 1바퀴 뒤진 차량)의 세이프티카 추월도 허용된다. 최근에는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백마커가 세이프티카를 추월해 뒤진 랩을 회복하는 것이 금지됐다. 하지만 이번 시즌부터는 백마커의 추월이 허용된다. 선두 차량들이 백마커의 방해로 받는 경우가 줄어들게 돼 더욱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2012 시즌부터 시즌 중 전면 금지됐던 테스트가 3일 동안 한 차례 허용된다. 이를 활용해 팀들은 머신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됐고, 시즌 후반 반전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4시간이 넘는 레이스가 치러지지 않도록 하는 4시간 톨, 금요일 연습 주행부터 지급된 모든 타이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크게 개선된 교통과 숙박

올해 F1은 편안한 관람이 가능하다. 교통과 숙박 대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먼저 교통의 경우 올해 목포대교와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도 개통했다. 또 F1 경주장까지 다양한 진출·입 노선을 확보했다. 각 노선별로 안내대책과 통제소를 확대해 관람객이 편안하게 경기장을 찾을 수 있게 했다. 차량 부족으로 관람객의 불편을 초래했던 경주장 내부 순환버스도 운행 대수를 확대했다. 관람객 안내를 위한 선담자도 배치한다.

환승 주차장은 목포신외항, 서해경찰청 옆, 영암 우편집중국 옆 3개소에 1만9000면을 확보해 주차권 없는 차량이 F1경주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통제한다. 관람객은 셔틀버스 8개 노선 665대를 운행해 수송한다.

숙박업소의 경우 지난해 지정 운영한 288개 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바가지요금과 위생불량 등 민원 발생 업소를 제외하고 대신 새로운 업소를 추가 지정했다. 특히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F1브랜드 간판 부착, 스마트폰 어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나중에, 조금이라도,
모터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EXR팀106’ 류시원 감독

영양 F1 서킷에 일본인들이 자주 눈에 띈다. 국내 프로카레이싱팀인 EXR팀106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카메라를 손에 쥔 일본 여성들이 먼발치에서 누군가를 간절하게 지켜보는 모습을 쉽게 대면할 수 있다. 그들의 모든 감각은 단 사람에게 집중돼 있다. 눈빛이 부드러운 남자, 웃을 때면 한없이 선한 눈빛이 드러나는 남자, 류시원. 그는 프로카레이싱팀 EXR팀106의 감독이면서 선수다.

일본 여성들은 먼발치에서 다만 지켜볼 뿐 그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다. 왜일까? 한 일본 여성의 입에서 서툰 한국어 말이 조심스럽게 나왔다. “너무 떨어져서...” 일본 여성들에게 류시원이란 존재는 바로 앞에 서면 너무 떨어져 말도 나오지 않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아마도 경외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는 감정일 것이다.

그가 최고의 한류스타인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그가 국내 프로 카레이싱팀을 이끌고 있으며 여러 대회에서 실력이 검증된 카레이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단지 취미 삼아 카레이싱을 즐기는 연예인 정도로 인식한다. 그에게 카레이싱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다. 속도에 몸을 맡기고 있으면 온몸이 반응하는 사람이다. 그는 국내 모터스포츠의 꽃을 피우기 위해 매일 질주한다. 국내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류시원은 카레이서, 그 이상의

Ryu Siwon

모터스포츠? “그건 내 삶의 일부”

혼자만 잘 달리면
아무 재미가 없다.
그는 모든 카레이서들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꾼다.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 연기가 직업이었듯이 카레이서 역시 그에겐 전부를 걸고 나서야 겨우 하나를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직업이다. 더구나 국내 모터스포츠는 이제 겨우 한 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다. F1 선수는 단 한 명도 없고, 거의 매일 크고 작은 경기가 열리는 영양 F1 경기장의 관중석은 늘 텅 비어있다. 류시원은 국내 모터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달린다. 모터스포츠는 그에게 삶의 일부다.

“국내 F1 선수 배출을 꿈꾼다!”

국내 모터스포츠는 열악하다. 그가 카레이싱의 세계를 알게 된 것은 1996년이다. 우연히 쇼 프로그램에서 레이싱 체험을 한 뒤 불면의 밤에 시달렸다. 눈을 감으면 서킷 위를 질주하는 속도의 쾌감이 몸으로 전해져 왔다.

그는 무엇인가 심취하면 달리는 성격이다. 서킷을 그리워만 할 수는 없었다. 1년 후 그는 기어이 프로선수로 데뷔했다. 그는 취미로 레이싱을 하는 연예인이라 성격이 산통치 않다는 말을 듣기

싫었다. 미친 듯이 레이싱에 전념했고, 어느 순간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의 반열에 올랐다. 좋은 선수가 되고 나니 어느 한계선에 멈춰 있는 열악한 국내 모터스포츠의 현실이 자꾸 눈에 밟혔다.

“F1 그랑프리 선수들은 수백억 원대 연봉을 받지만 국내에서 모터스포츠 선수로 살려면 굶을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프로선수라 하더라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직업을 가져야 해요. 제 목표는 모터스포츠 선수들이 경기에 전념하면서도 밥 먹고 돈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국내에서도 F1 선수가 배출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가 2009년 EXR팀106을 창단한 것도 저변 확대를 위한 것이었다. 더 많은 선수들이 활동할 때 한국 최초의 F1 선수를 배출



하는 길도 그만큼 빨라진다. EXR팀106에 대한 그의 애착은 대단하다. 드라마 출연 제의를 받을 때면 그가 오래 제작사에 요구하는 것이 있다. “레이싱 스케줄에 신경 써 달라”는 것. 그 힘으로 EXR팀106은 창단 3년 만에 알아주는 명문팀이 됐다. 2010년과 2011년 ‘제네시스쿠페 클래스’에서 2년 연속으로 시리즈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또 국내 양대 대회인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KSF)과 티빙슈퍼레이스에서 모두 챔피언을 배출했다.

혼자만 잘 달리면 무슨 재미?

그는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아주는 유명 연예인이다. 그러나 그 화려한 이력이 역으로 프로선수로 사는 데는 불편하다. 물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장점도 있다. 그는 말한다. “연예인이란 이유

때문에 '돈 많은 한 연예인이 그냥 취미로 레이싱팀 하나 만들었구나' 라는 시선을 받기 싫었어요. 근데 연예인인 나를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모터스포츠에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죠.”

그는 실력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 받고 싶었다. 누구보다 열심히 연습했고,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뛰어난 실력도 갖췄다.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인 최초로 중국 주하이와 상하이에서 열린 '페라리 챌린지 레이 션 클래스'에 페라리 458 챌린지를 타고 출전해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혼자만 잘 달리면 아무 재미가 없다. 그는 모든 카레이서들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꾼다. 그래서일 것이다. 신인 드라이버 육성은 류시원의 또 다른 임무다. 그는 공개 오디션 등을 통해 신인 드라이버를 선발하는 '슈퍼 루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오디션부터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125대1의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그렇게 어려운 관문을 뚫고 선발된 신인들에는 어떤 기회가 주어질까?

“입는 옷부터 장비는 물론, 시합에 나가는 비용까지 전적으로 지원할 생각이예요. 선발자들은 자신의 돈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해줄 수 있는 만큼 확실히 밀어주고 그 열매는 본인들 스스로가 먹을 수 있도록 도와 줄 거예요. 신인들이 실력을 키워 스타 레이서가 돼 다른 팀으로 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보내줄 겁니다. 나의 역할은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영암 F1 흥행 성공, 모든 카레이서의 희망”

세계 3대 스포츠축제의 하나인 F1자동차경주대회에 대한 그의 애정은 각별하다. 그는 2010년 7월 영암에서 처음 열린 2010 포뮬러원(F1) 코리아 그랑프리 홍보대사를 맡았다. 그 때 류시원은 영암 F1이 흥행에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다. 국내 모터스포츠의 저변

확대에 그만큼 호재가 없기 때문이다.

“국내 모터스포츠의 가장 큰 한계는 대중성이 없어 저변확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관중석은 좀처럼 차지 않아요. 그나마 오는 관중들도 일부 마니아들과 일본에서 나를 보기 위해 와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일반인은 거의 없어요. 대중성이 없어 대기업도 투자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돼요. 그래서 영암 F1의 흥행 성공이 국내 모든 카레이서들의 희망이예요.”

그는 선진적인 레이스 문화가 국내외 대중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 2010 포뮬러원(F1) 코리아 그랑프리의 홍보대사를 맡았다. 특히 그는 개인적으로 F1 그랑프리는 누구나 평생에 한 번은 꼭 봐야 할 스포츠라 생각한다. 머신의 굉음을 듣고 있으면 온몸의 세포들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느끼는 카레이싱의 매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는 말한다. “레이싱을 하는 순간만큼은 그러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집중력이 필요하죠. 레이싱 도중에는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중요해요. 온몸이 하나의 일에 고도로 집중할 수 있는 게 카레이싱이 매력적이고, 그 일이 나는 좋아요. 나중에 조금이라도 모터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축구공 하나로 똘똘 뭉친 '한 팀' 축구동호회 JFC

“폼은 딱 주전선수인데...”
 “과장님 실력은 주전선수로 보기 어렵고, 주력선수가 맞지 않나. 하하하.”
 원정경기가 있는 날이다. 전국도시개발공사 노동조합 협의회가 주최하는 ‘제 5회 노사화합 축구대회’가 대구에서 열렸다. “우리 축구동호회 JFC에게는 가장 중요한 경기예요.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자리죠.” 축구동호회 JFC 회장을 맡고 있는 관광기획팀 노기송 팀장. 바쁜 회사업무 가운데도 회원들 모두 시간을 쪼개 연습에 임했다.

큼지막한 가방, 선글라스, 유니폼... ‘폼’ 만큼은 프로 축구 선수단과 별 차이가 없다. 무엇보다 승리를 향한 아무진 표정들, 그 투지만큼은 더 나으면 나았지 결코 뒤지지 않는다.

지난해 예선탈락, 올해 목표는 2부리그 우승

예선탈락. 작년 제 4회 노사화합 축구대회 전남개발공사 성적. 골 득실차에서 졌다지만 어깨 축 늘어트린 채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한 게임 끝내고 얼른 목포 가게. 대구에서 목포까지 가려면 만나질 걸리잖아.” 어우회 등 응원을 외준 회사 동료들의 장난기 섞인 농담. 축



구동호회 회원들이 농담을 받아준다. “저희도 눈치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주말인데 일찍 집에 들어가게 해줄게요.”
 하지만 경기가 열리는 대구강변축구장에 도착하자 동호회 회원들 자세가 다르다. 몸을 푸느라 여념이 없다. 발목풀기, 허리비틀기, 기지개 펴기, 제자리에서 꺾충꺾충 뛰고, 달리고... 서로 어깨 주물러 주고, 발 마사지 해주고, 얼굴 탈까봐 스크림 덕지덕지 발라주고, 축구동호회 회원들의 이날 모습은 직장 안에서의 상사와 직원 관계가 아니라 듬직한 선·후배, 잘 챙겨주고 잘 따라주는 형님 동생이었다. 축구공 하나로 똘똘 뭉친 ‘한 팀’이었다.

‘1부 리그 진출. 축구동호회 JFC의 이번 경기 목표. 해마다 열리는 노사화합 축구대회에는 1부 리그와 2부 리그가 있다. 1부 리그는 실력이 막강한 팀이 모여 경기를 치른다. 2부 리그는 실력이 못 미치는 팀끼리



두고 ‘으샤으샤’ ‘그래 해보자 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잖아요’ 한다.

“우승 못 하면 선수들은 걸어서 목표기”

“전남개발공사 파이팅! 전남개발공사 힘내라!” ‘악쓰는 소리’ 가 줄어들지 않는다. ‘문제만 파이팅’ ‘김성현 파이팅’... 선수 한 명 한 명에 대한 응원도 이어진다. 경북도시개발공사와 맞붙은 첫 경기. 환호성이 잦아들 수 없었던 것은 연달아 터지는 골! 골! 골! 경기결과 5대 0. 응원을 온 한 신입사원은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우리팀’이라는 위력이 그렇게 열렬한 환호성으로 터져 나왔다.
 분위기는 우승트로피를 따온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뛰느라 붉게 상기된 선수들 얼굴은 동네 꼬마들처럼 싱글벙글 이었다. 응원팀 손길도 빠빠졌다. 얼음물에 젖힌 수건을 건네주고 음료수를 돌리고 선수들 설 자리를 챙기고.

두 번째 상대팀은 전북도시개발공사. 허진호 대리가 ‘2차전 전북도시개발공사 전략안’을 꺼낸다. 전략이 세밀하다. 서로 응원한다.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뛰면 된다.” 경기결과 3대 1, 선수도 응원팀도 열사 안았다. 바로 이어진 경남도시개발공사와 맞붙은 결승전, 몸은 컨디션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다. 파이팅! 전남개발공사 파이팅! 응원만이 힘이였다.

해는 뜨거웠다. 하지만 한마음으로 뭉친 ‘일편단심’은 그 불덩이보다 더 뜨거웠다. 응원의 함성과 선수들의 꺾이지 않는 열정이 하나 된 의



경기를 한다. 2부 리그에서 우승을 해야 1부 리그로 진출할 수 있다. 이번에는 꼭 1부 리그에 진출하는 것. 축구공은 동글다. 고객맞이팀 신창석 과장은 “꼭 우승에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목표, 같이 이뤄내야 할 공동목표를

기투함. 심판의 경기종료를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 모두 방향 뛰었다. 환호성이 떠나갈 듯 했다. 경기결과 2대 1, 우승이다.

축구동호회 활동은 회사생활에도 큰 힘

축구동호회 JFC 노기송 팀장은 “감격스럽다”고 우승소감을 얘기한다. “우리 동호회 회원들이 이루고 싶었던 일을 해냈다는 사실 자체가 기쁘고 자랑스럽다. 모두 같이 누릴 수 있는 즐거운 일 하나를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전남개발공사 축구동호회 JFC는 2008년 만들어졌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것 하나만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했다. 박철욱 대리는 “땀 흘리고, 땀 흘리고 나서의 개운함, 그래서 축구가 좋다”며 “공 하나로 어울릴 수 있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축구의 매력”이라고 한다.
 신창석 과장은 “동호회 활동은 업무관계를 떠나서 친목으로 이뤄진다. 사무공간을 떠나 회사동료들과 만나는 의미도 큰 것 같다. 인간적인 관계가 이뤄지며 다른 부서 사정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업무적인 소통도 훨씬 유연해지는 면이 많다”고 한다.

신입사원인 도시개발팀 구판서 주임은 “축구동호회 활동이 회사생활을 하는데 큰 힘이 됐다”고 말한다. “고향이 대구인데 축구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회사가 즐거워졌다. 회사생활에 대한 선배들의 조언도 고맙고 몸 부딪치며 함께 뛰는 것 자체에서 내가 전남개발공사의 한 식구라는 소속감이 많이 든다”고 말한다.
 축구공 하나, 축구동호회 JFC 활동은 회사생활에서 즐거움 하나를 더 만드는 일이었다. 회사에 즐거운 일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한 회원들의 마음가짐이기도 했다.



옛 마을에 서린 끝 모를 이야기들 '남도 답사 1번지' 강진

강진 땅 곳곳엔 이야기가 있다. 병영성은 하멜을 품고, 다산초당에는 끝 모를 깊이를 가진 사내, 다산의 삶이 깊게 잠든다. 월남마을엔 비밀의 탑이 서 있고, 영랑생가에서는 모란이 필 때마다 시의 향기가 함께 핀다. 백련사에는 천년의 동백 숲에 비밀결사의 다짐이 아름답게 살아있다.

그래서일 것이다. 유홍준은 강진을 두고 '남도 답사 1번지' 라는 현사를 남겼다. 발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땅, 강진으로 떠나는 여행은 시간의 깊이를 향해 걷는 걸음이다.



슬픔의 탑, 열망의 탑-강진 '월남사지'

달의 남쪽에 비밀 같은 탑이 하나 서 있다. 그 탑 아래에 서면 어떤 열망이나 슬픔 같은 것들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온다. 월출산의 남쪽 배경을 끌어 앉은 곳에 탑은 서 있다. 강진군 성전면 월남마을에 자리한 월남사지. 월출산의 포근함을 배경 삼아 '월남사지 3층석탑'은 서 있다. 그 탑은 백제의 오래된 후손들이 남긴 비밀의 코드 같다.

월남사지에 대한 언급은 대부분 추정 의 역사다.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 고려 후기 진각국사가 창건했다는 것, 한때는 지금의 월남

마을 전체가 절의 영역이었다는 언급 정도가 고증된 사실이다. 절이 정확하게 언제 생겼고, 언제 사라졌는지조차 알 수 없다. 다만 선명한 것은 월남사지삼층석탑뿐이다.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진각국사비' 정도를 들 수 있겠다.

탑은 경이롭다. 다른 모든 것은 '시간의 재'로 남았는데 오직 삼층의 석탑만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 진각국사비도 위의 절반은 몸체에서 떨어져 나갔고, 남아있는 앞면 또한 글자 한 자 남아 있지 않다. 모든 것을 지워버린 천 년에 가까운 시간을 탑은 어떻게 건너왔을까?



월남사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한줄기 문자 배열로 남아있다. '월남사는 월출산 남쪽에 있는데 고려시대 진각국사가 창건하였고, 이규보가 찬한 비가 있다.' 이것이 전부다. 월남사지삼층석탑은 담백하다. 단조로운 선들이 모여 탑을 이룬다. 보는 각도에 따라 탑의 위용이 변하는데 월출산과 겹쳐 보면 바위 한쪽이 되고, 그 반대편이라면 오래된 동백나무 가지와 하나로 섞인다. 탑을 이룬 석재의 선에서 긴 여백이 느껴지는 탑이다. 사람으로 따지면 여성과 남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셈인데 늘씬하면서 우아하고, 또한 강렬하다. 전형적인 백제의 석탑 양식이다.

누구는 그 탑에서 부여의 '정림사지오층석탑'을 본다. 의심의 여지 없이 두 탑은 닮아있다. 정림사지오층석탑은 7세기 중엽, 월남사지삼층석탑은 13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둘 사이의 거리는 무려 600년이다.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닌 것이다.

고려 말에 월남의 사람들은 왜 백제의 양식으로 탑을 만들었을까? 어떤 비밀의 코드들이 숨어있을 법한데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다만 정림사지오층석탑에 백제인들의 한이 담겨있었다는 것만은 언급할 수 있겠다. 당나라 장수 소정방은 백제를 멸하고 그 탑에 '백제를 정벌한 기념탑'이란 뜻의 문장을 새겼다. 600년의 시간을 넘어 서로 닮아있는 두 개의 탑, 비밀을 풀어내는 열쇠는 아마도 '백제' 일 것이다.

초라함 위에 피운 눈부신 갯신 - 정다산 유적지

다산(茶山)의 거처로 가는 길에서는 늘 적요가 된다. 유배의 땅인 초당에서 다산은 '밖'을 보지 않았다. 자기 '안'을 들여다보며 오랜 생각들을 글로 남겼다. 다산에게 유배는 치 떨리는 분노와 어둠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강진에서 보낸 18년의 시간은 '햇'이 되었다. 그가 세상에 남긴 542권의 저서 거의 전부가 유배지에서 작성됐다.

다산이 한처럼 걸어내려 왔던 그 유배의 길들이 '문화탐방로'로 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시범사업이다. 길은 다산수련원에서 시작해 다산초당-백련사-철세

도래지-김영랑생가-무위사-태평양녹차밭-천황사-월출산-도갑사-왕인박사 유적지-구림마을'로 연결된다. 모두 합치면 55km다. 길의 면면이 다산 유배길을 담고 있다.

다산이 강진에서 처음 몸을 의탁했던 곳은 동문 밖 주막집이었다. 아무도 사학을 믿는 대역죄인과 가깝게 지내려 하지 않았다. 오직 동문 밖 주막의 늙은 할머니가 다산에게 뒷방 한 칸을 내줬을 뿐이다. 다산은 그곳에서 4년을 살았다. 다산은 비좁은 공간에 사의재(四宜齋)라는 당호를 붙이고 글을 썼으며 제자를 길렀다.

슬픔의 끝에 드디어 다산초당의 시대가 열린다. 1808년 봄, 그는 다산초당으로 거처를 옮긴다. 다산은 초당의 동쪽에 동암을 지어 거처했다. 건너엔 서암을 지어 제자들에게 주었다. 물을 끌어들여 인공의 폭포를 만들었고 연못도 팠다. 연못 가운데는 해변에서 주어진 돌로 탑을 세웠다. 흑산에 있는 형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이었다. 잉어와 붕어를 길렀고, 화초를 심었다. 산 중턱에 밭을 일구 채소도 길렀다. 바위 절벽에는 징표를 새겼다. 정석(正石),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내면





에 쌓았던 다산은 겉으로 화려하지 않았다. 바위에 새겨진 달랑 두 자
가 다산의 깊이를 말해준다. 사상범의 틀레에 눌러 유배된 몸으로
다산은 백성을 걱정했다.
그의 저서들은 모두 고뇌의 문장이며 삼정(전정·환곡·군정)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다. 그는 당시의 국가를 이렇게 진단했다. “털끝만큼
작은 것이라도 병들지 않은 것이 없으니, 지금 이를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하고 말 것”이라 했다. 1818년 8월 다산은 귀양에
서 풀렸다. 그 해 봄 목민심서 48권이 완성됐다.

하도 길에서 십리 골목 - 강진 병영 한골목

강진 병영은 수인산, 성자산, 별락산, 화방산 등 사방이 산으로 둘러
싸인 분지다. 마을 전체가 역사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병영’은 병마절도사영의 준말.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조선
시대 군사도시였다. 전라 병영성은 조선조 500여 년간 전라도 육군의
총 지휘부였던 곳. 1417년(태종 17) 본래 광산현(광주 송정리)에 설치
되어 있던 병마절도사영이 옮겨왔다. 병영성은 초대 병마절도사인
마천목 장군 때 축조됐다고 한다. 꿈속에 계시를 받아서 ‘눈의 자국
을 따라 축조하였다’고 하여 ‘설성’이라고도 한다.

이 마을에 십리 골목이 있다. 500년 쯤 된 돌담길이다. 병영마을은
표류기를 쓴 하멜과 그 일행이 잠시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다. 한적
한 골목길을 거니는 길이다. 독특한 돌담길을 따라 걷는 길이기도
하다. 흙을 깔고 돌을 빗살무늬로 세우고 또 흙을 깔고 다시 돌을 반대
방향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만든 돌담은 이곳 병영과 인근 마을에서
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돌담. 사람들은 이 돌담이 병영에서 억류생활

을 했던 네덜란드인 하멜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동인도회사 직원이었던 하멜은 1653년 제주도에 표류해 한양으로
압송되었다가 1656년 이곳에 억류돼 1663년 여수를 거쳐 일본으로
탈출하기까지 7년 동안 병영에서 억류생활을 했다. 돌담의 나이 또
한 만만치 않다. 몇 백년의 시간이 돌담에 실려 있는 셈이다.

하도 길에서 ‘한골목’이다. 한골목의 돌담은 2m를 훌쩍 넘을 만큼
높다. 돌담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병영과 관련이 있다. 말을 타고 출입
하는 군관들이 많았던 탓이다. 백성들은 말을 탄 군관들이 안을 볼 수
없도록 담을 높게 쌓았다고 한다.

오래된 돌담이지만 지나온 세월의 부침을 그대로 담고 있다. 돌담과
돌담 사이 무너진 곳은 시멘트 블록이 자리하기도 한다. 오래된 슬레
이트와 시멘트 벽돌과 돌담이 함께 공존하는 골목길에 수많은 시간
이 오버랩 된다.



강진과 함께 하는 맛있는 여행



● 땀 뻘뻘 흘리며 먹는 바다의 맛 - 짱뚱어탕

강진은 긴 남해의 갯벌이 길게 펼쳐진다. 강진만의 갯벌은
바다의 혈관 같다. 강진만을 곁에 둔 주민들에게는 갯벌이 삶
의 밑천이다.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다. 갯벌이 버티고 있
는 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갯벌은 자기 안의 무수한 생명만 키우
는 게 아니다. 사람도 키운다.

그 넓은 갯벌에서 짱뚱어가 자란다. 짱뚱어는 얼룩무늬가 있는 비단
짱뚱어와 무늬가 없는 민둥이가 있다. 강진만의 것은 거의가 비단짱
뚱어다. ‘뭇가 다르겠어?’ 생각하면 오산이다. 가격부터 비단짱뚱
어가 민둥이보다 3배 비싸다. 짱뚱어탕 맛의 비결은 옛날부터 끓여온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일단 짱뚱어를 소금으로 씻는다. 그리고 대파 양파 다시마 등 천연
재료를 넣어 끓여둔 육수에 짱뚱어를 통째 넣어 삶는다. 푹 삶아낸
다음 체에 밭아 뼈를 발라낸다. 무 배추 토란대 시래기를 넣고 적당
한 된장과 소금으로 간 맞춰 끓인다. 짱뚱어를 충분히 넣어 끓이
면 국물이 걸쭉하고 시원하다.

짱뚱어는 갯벌에서 팼팼팔팔 뛰다니며 일광욕을 하기에 비린내가
없고 겨울잠을 자며 양식이 불가능하다. 짱뚱어는 민첩하고 인기척에
재빨리 반응해 갯벌을 뛰어서 도망치기 때문에 그물로도 잡기 힘들
다. 숙련된 낚시꾼들에 의해 낚시로 잡히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다.

짱뚱어는 움직임이 빨라서 작은 소리만 나도 구멍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린다. 그 구멍이 12개다. 뿔 속에서 연결된 12개의 구멍이라 들어간
구멍을 헤집는다 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빠른 움직임과 상처가
나도 스스로 지혈을 해내는 능력을 갖고 있다. 짱뚱어를 먹는다는 것
은 그 힘을 먹는다는 것이다. 과식을 해도 탈이
나지 않는다.



● 아홉 강물을 마시는 장어 - 구강포 장어구이



탐진강 하류, 구강포. 거기서 아홉
개의 강물이 만나 바다로 스민다.
아홉 고을의 삶이 그곳에 고인다.
아름다운 지명 구강포(九江浦)는
그런 의미이다. 구강포에서는
강과 바다 그리고 하천의 경계
가 모호하다. 혹은 아예 없다.
삶이란 원래 그렇게 막힌 데
없이 모두 통하고, 서로 열
려 있음을 구강포는 존재의
힘으로 증명한다.

구강포는 아홉 물길의 끝이다.

둘러보면 모두 ‘갯갯’이다. 구강포에서는 포구를 넘나드는 배들 사
이로 시간이 갔다. 지금은 퇴락의 기운만 서늘하지만 한때 명성을
떨치던 남해의 내륙 뱃길이었다. 강이 바다와 닿는 강진만으로부터
해창, 남포, 목리, 백골포로 이어진다. 일제 때는 좁은 뱃길을 타고
거대한 상선들이 드나들었다.

거기서 강진의 맛있는 여행의 시작인 장어가 잡힌다. 장어를 잡는
방식이 독특하다. 강바닥에 경운기 하나 분량의 돌무더기를 쌓는다.
그러면 장어가 그 돌 속으로 들어간다. 구강포 사람들은 돌무더기
주변에 그물을 치고 돌을 하나하나 걷어낸다. 그러면 그물 속에는
장어만 남는다. 잡히는 양이 많지 않다. 거대한 돌무더기 하나에서
많으면 세 마리 정도가 잡힌다.

장어구이는 장어의 감칠맛을 그대로 살린 고단백음식이다. 재료가 되
는 장어는 고단백 식품으로 체력이 떨어지는 여름에 보양식으로 많이
먹는다. 장어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B, 비타민 C가 풍부하다. 여성의
피부미용과 피로회복, 노화방지, 정력증강에 좋은 식품이다. 무엇보다
EPA와 DHA와 같은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
춰준다. 성인병 예방에 좋고 갈습 함량도 매우 풍부한 편이다.



소금은 하늘에서 온다!

증도 천일염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세계 최고의 소금은 프랑스 계랑드 천일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전남 서해안에서 생산된 천일염이 더 최고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맛과 미네랄 함량이 더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전남의 염전 규모는 프랑스 계랑드 천일염전의 1.7배에 달합니다. 전남 서해안은 세계 최고급품 소금을 생산하는 최대의 공장인 셈입니다.

프랑스산 소금은 우리의 60배나 높은 가격에 팔립니다.

일본은 전남의 천일염을 수입해 약간 가공한 다음 우리보다 10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좋은 천일염을 가지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어야 할까요?

전남 천일염의 세계적인 명품화를 위해 전남개발공사는 '팻솔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팻솔트 천일염과 토판 천일염은 세계 최고의 명품입니다. 그 소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소금을 만드는 것은 햇볕과 바람이다. 천일염(天日鹽)이라고 했다. 소금은 하늘이 내려준다. 그러므로 바다의 농사가 아니라 하늘농사다. 바다는 다만 염분을 머금은 물을 공급할 뿐이다. 하늘이 맑고 햇볕이 뜨겁고 바람이 좋은 방향으로 불어오면 소금이 온다. 만드는 것이 아니다. 소금은 하늘에서 온다.

소금꽃을 피우는 주체는 햇볕이다. 봄날에는 40평 염전에서 30kg짜리 천일염 대어섯 가마가 나온다. 한여름 땡볕이라면 거뜬히 12가마를 넘길 것이다. 반대로 겨울이라면 3가마를 넘지 못한다. 염전의 바닥은 하늘과 서로 통하는 길목이다.

소금꽃 피는 마을, 증도

증도 태평염전, 이 나라에서 단일 규모로 여기보다 큰 염전은 없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무려 100만 평이다. 거기서 한 해 동안 생산되는 소금이 30kg짜리 50만 가마다. 증도에 가면 그런 말이 있다. “태평 염전 소금이면 증도를 폭설의 섬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 소금을 증도에 깔면 발목 혹은 무릎까지 빠지는 높이로 소금 폭설을 만들 수 있다. 증도는 섬치고는 전답이 많은 편이다. 그 많은 논과 밭의 넓이와 염전의 크기가 같다.

소금은 과학이다. 소금이 시작되는 바닥은 1증발지인 ‘난치’다. 이때의 염도는 3도로 순수 바닷물의 수준이다. 만조 때 염전 저수지에 받아들여진 바닷물은 소금의 길을 떠난다. 난치만 여섯 바닥을 통과한다. 그 과정을 통해 물은 증발하고 염도가 15도까지 올라온다.

다음 바닥은 2증발지인 ‘느티’다. 네 개의 바닥을 바닷물은 염도의 단계를 밟아가며 위로 올라간다. 느티의 맨 끝바닥에 이르면 바닷물의 염도는 23도까지 올라간다. 마지막으로 결정지가 네 개의 바닥이다. 염전은 여름이 제일 바쁘다. 가장 많은 소금이 오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눈치를 매일 살펴야 하는 때가 여름이다. 23도로 결정지에 닿은 소금물이 27도에 이르면 결정이 맺히고 29도에서 30도 사이에서 채렴이 이루어진다.

길고 긴 '소금의 길'

하루해가 정오의 문턱을 넘었다. 소금이 오는 시간이

하늘이 맑고 햇볕이 뜨겁고 바람이 좋은 밤 한밤도 볼이 오면 소금이 온다. 만드는 것이 아니다. 소금은 하늘에서 온다.

검은 바닥은 매일 무겁고 고된 햇빛의 문장이 된다. 그 문장, 꽃의 형상이다. 소금은 한 번 피면 지지 않는 꽃이다. 염부의 장단지가 버텨주는 힘이 강할수록 햇빛은 따갑고, 소금꽃은 많이 핀다.

바다에 꽃이 핀다. 그 꽃 하얗다. 염전에 가면 정말로 소금꽃이 핀다. 맨 처음 소금은 물표면 위에서 하얀 막처럼 번져 소금 결정들을 모은다. 그 형상이 정말로 꽃처럼 생겼다. 염부들은 그걸 소금꽃이라 부른다.

염전의 문장은 햇빛의 세기와 오차 없이 비례한다. 여름에는 많이 피고, 겨울에는 어찌다 핀다. 염전의 바닥은 고무가 코팅된 장판이다. 검은 바닥에 피는 흰 소금꽃, 그 색의 극명한 대비가 염부들의 숙명이다. 검은 바닥은 햇빛의 분산을 최대한 막아 더 많은 소금꽃을 피어나게 한다. 염부들에게는 더 뜨거운 햇살을 의미한다.

다. 오전 내내 방구석에 죽치고 있던 염부들이 바빠졌다. 염부 조기 양(42) 씨가 먼저 소금 대패질을 시작한다. 물과 함께 가라앉아 있던 소금이 밀린다. 물살의 힘을 잘 이용해야 소금을 금방 모을 수 있다. 숙련된 사람은 40평 염전의 소금을 5분이면 모은다. 초짜라면 15분은 족히 걸린다.

면발치에서 사장이 묻는다. “오늘은 몇 리어카나 왔나?”

“한 네 리어카 넘게 왔는데요~” 말끝에 장난기가 섞여 있다. 리어카 하나면 소금이 세 가마다. 열두 가마가 넘게 왔다는 말인데 아무도 믿지 않는 눈치다. 바람이 좋지 않았다. 여러 염전의 소금이 ‘깔깔이’ 다.

깔깔이는 염부들이 잘못 온 소금을 이르는 말이다. 소금이 작고 거칠다는 의미쯤 될 것이다. 염전은 일종의 계단이다. 층계는 없지만 단계를 밟고 바닷물이 올라온다. 그 단계가 많게는 15단을 이룬다. 만조가 되면 저 멀리 염전 저수지에 바닷물을 받는다. 이때 염도는 3도이다. 다음은 1증발지인 ‘난치’다. 이 단계만 여섯 계단을 통과해야 한다. 염도가 15도 정도로 오르면 2증발지인 ‘느티’로 와서 다시 네 개의 계단을 통과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지에 이른다. 거기서의 염도는 23도쯤이다.

“오장육보를 다 내주고 만드는 토판염”

고무 코팅 장판이 나오기 전 염전은 고된 노동의 결정체였다. ‘토판염전’의 시절이다. 장판을 깔면 소금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단축되고 많은 소금을 얻을 수 있다. 검은 장판 덕에 한 여름 결정지 바닥의 온도는 50도를 상회한다. 토판염전은 갯벌 위에서 소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그렇게 생산된 소금이 ‘토판염’이다. 토판염은 갯벌이 품고 있는 다양한 유기화합물과 천연 미네랄이 소금 안에 맺힌다.

토판염을 만드는 것은 시간이다. 염부와 바닷물의 길긴 싸움이다. 갯벌이 물과 섞이지 않도록 무거운 롤러로 결정지의 바닥을 반복해서 다진다. 물을 가두고, 소금 결정이 맺

히면 밀대가 아닌 나무 판대기로 아주 조심스럽게 소금을 걷어낸다. 그 일을 세 번 반복한다. 더 이상 나무 판대기를 밀면 갯벌이 소금과 섞여 버린다.

태평염전에서 평생 염전을 운영한 박형기(58)씨가 토판염전의 깊이에 대해 말한다. “엔간한 정성으로는 토판염전 꿈도 못 꾀. 염부 오장육보를 다 내줘야 만들어지는 것이 토판염이야. 염전 바닥에서 날 새는 일이 허다해. 옛날에는 전부 토판염전이었는데 소금 망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게 소금이 금값이야.”

지금 증도에서 토판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 눈물 같은 전통의 재현이다. 토판염은 일반 천일염 가격의 15배다. 그러나 생산되는 소금의 양 역시 그만큼 줄어든다. 토판염은 더 많은 염부의 눈물이 더해져 최고의 소금이 된다.



말 속에 ‘눈물’을 담다 ‘짠..하다’

지난 여름 한 동네 사는 봉강아집이 가셨다. 뇌졸중이었으니 갑자기 닥친 죽음이었다.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남은 사람은 또 남은 길을 걸어야 할 것인데 봉강아제는 삶의 의욕이 없어 보였다.

아집의 평생 소원은 입식 부엌이었다. 그 꿈이 봄에 이루어졌다. 봉강아제가 큰 마음을 먹은 것이다. 그런데 소원하던 입식 부엌을 얻고 한 계절을 넘기지 못하고 갑자기 가셨다. 혼자 남은 집, 부엌에 들어갈 때마다 봉강아제는 먼지 먼지 생각에 마음이 시렸을 것이다. 눈물을 훔치는 날도 적지 않았다. 어느 날 아제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잡것이, 그리고 들들 볶더니 막상 입식부엌 만들어준게 가버리네. 한 일 년만 요 부엌서 살림하다가 갔어도 이르게 짠하지는 않을 것이지...”

‘짠하다’라는 전라도 말 속에는 눈물이 있다. 인정이 많은 동네이니 만큼 전라도에서 ‘짠하다’는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형용사다. 표준말로 바꾸면 ‘가엾다’쯤 될 것인데 어감의 깊이가 확 떨어진다. ‘가엾다’에는 연민만 있을 뿐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물이 포함돼 있지 않다. 눈물은 상대의 아픈 상황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동화다. 타자에 대한 마음 씀씀이인 것이다.

어떤 시인은 ‘눈물 속에는 고래가 산다’고 구라를 치기도 했지만 정말로 ‘짠하다’ 속에는 눈물이 산다. 말의 생김부터가 그렇다. ‘짠하다’는 ‘짜다’는 맛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여기서 짠맛은 소금기 같은 눈물의 맛이다. 가엾은 대상을 보면 눈물이 날 것이고, 그 눈물까지를 섞어 말을 만들었으니 ‘짠하다’ 되겠다.



자전거 바퀴에 섬진강을 담다



섬진강 자전거 도로

자전거로 섬진강을 달린다. 강변 사이 숲의 색이 진하다.

강물은 강 언덕의 풍경에 민감하다. 시간을 몸으로 기억해 그때마다 다른 형상으로 얼굴을 바꾼다. 꽃잎이 날리면 날리는 대로, 나무들이 짙은 녹색을 담으면 그 표정을 그렇게 담아낸다. 지금 섬진강 강물 위로 바람이 불고, 잠시 시간이 정지하는 듯 나무들은 푸르다. 그 아름다운 풍경 위를 자전거가 달린다.

유홍준이 그랬다. “섬진강은 보는 강이지, 말하는 강이 아니다.” 느리고 길게 이어진 섬진강 길을 자전거로 달려 본 사람은 안다. 정말로 섬진강은 보는 강이다. 나무들이 푸르러지는 소리는 귀로 들리지 않는다. “강이 여름빛으로 물들겠구나!” 입으로 읊기면 이미 강은 혼자 지문다. 눈으로만 읽어낼 수 있는 소란이 거기 있다.



자전거 위에서 보는 섬진강은?

강은 물만 흐르는 게 아니다. 강을 이룬 골을 따라 바람도 흐른다. 강은 바람의 길목이다. 언제부턴가 섬진강이 '나' 만 보라하지 않는다. '우리' 를 부른다. 주말이면 많은 자전거들이 섬진강으로 집결한다.

강 언덕을 따라 자전거 페달을 밟는 맛, 직접 달려보지 않고는 절대 모른다. 그 느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바람을 따라 자전거가 달리는 기분이다. 혹은 반대의 설정도 가능하다. 자전거가 낸 길을 따라 바람이 긴 호흡으로 달려온다.

다양하다. 그 강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럿이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연인이 있다. 각기 자전거를 타는 방식도 다르다. 친구라면 1인용을 선호한다. 연인은 2인용이다. 둘이 하나다. 가족을 위해 특별 제작된 자전거도 있다. 꼭 마차 같다. 바퀴가 넷,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 사람도 부담이 없다.

강 언덕을 따라 난 자전거 길은 20분이면 한 바퀴를 돌 수 있다. 출발점은 '두가교'다. 지금은 분홍빛으로 단장됐지만 예전의 두가교는 작은 현수교였다. 그 다리 위에서 자전거는 강 언덕을 향해 출발한다.

사방이 열려있는 '자전거길'

섬진강 자전거 길은 사방이 열려 있다. 강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다리가 수없이 많다. 그 다리 위로 자전거는 달린다. 거기 가면 모든 게 준비돼 있다. 힘들게 자전거를 싣고 가야 하는 수고로움이 없다. 다양한 자전거를 빌려준다.

보여준다. 굳이 포장된 자전거 전용도로만 고집할 필요도 없다. 흙길을 달리고 싶다면 샛길로 살짝 빠져도 된다. 차가 많이 달리지 않는 길이다. 그 길을 따라 구레 압록까지 달려보는 맛도 괜찮다.

자전거 위에서 만나는 섬진강은 또 다른 풍경이다. 자전거의 속도에 따라 물빛이 변한다. 하늘을 담고 흐르는 강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여러 장면들을 중첩시켜

압록은 섬진강의 가장 아름다운 정점이다. 석곡을 지나 온 보성강 지류가 그곳에서 몸을 쉰다. 진정한 섬진강은 압록에서 시작된다. '합해짐'의 성격도 단순하지 않다. 물과 물이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거기서 사람과 강이 만난다. 자전거 위에서 만나는 압록의 풍경은 장엄하다.

섬진강 자전거 도로를 달린다. 자전거 바퀴에 섬진강이 담기고, 강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저문다.



너희가 '전남' 을 아느냐? 대학생홍보기자단

휴가 계획을 세우던 A씨 숙박할 곳을 찾다가 한옥으로 된 호텔이 있다는 말을 듣고 네OO 검색창에 한옥호텔을 넣어본다. 있다. 친절하게도 어떤 블로거가 "우리나라 최고의 한옥호텔 오동재를 소개합니다"라는 포스팅을 올려놓았다. 객실내부에서 숙박비까지 정보도 꼼꼼하다. A씨는 만족스럽게 정보를 얻어간다.

전남 곳곳 알리는 역할

전남개발공사 대학생 홍보기자단은 10월까지 젊은 세대의 신선하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전남의 발전 모습, 공사의 주요 사업 및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알려 나가게 된다.

활동에 들어간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았지만 이들의 속수가 미치는 곳은 다양하다.

한옥호텔인 영산재, 오동재 소개부터 F1 경기장, 여수 경도, 전남개발공사 노동조합주최 탁구대회, 봉사활동까지 구석구석이다.

전남개발공사의 다양한 사업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데 보람도 느낀다.

"기자단 활동하면서 한옥 호텔은 처음 가봤어요. 그런 경험들이 신기하고 재밌기도 하지만 먼저 경험한 것들을 남들에게 소개해주는 느낌이 좋아요."

김화란 씨는 누군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얻어간다는 사실이 만족스럽다. 댓글이라도 달리면 더욱 보람차다.

"쓴 글에 댓글이 달리면 감동이죠. 전에 노동조합이 주최한 사내 탁구대회 모습을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현장감 있게 잘 써줬다'는 직원분들의 댓글에 힘이나더라고요."

"우리는대학생홍보기자단!"

전남개발공사의 다양한 사업들과 행사들에 대한 정보들을 블로그를 통해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 전남개발공사 1기 대학생홍보기자단이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된 기자단이 지난 5월부터 곳곳에서 활약중이다.

"학교 게시판을 통해 기자단을 모집한다는 걸 알았어요. 전남 지역을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어요."

여행을 좋아한다는 김화란 씨가 전남개발공사 홍보기자단에 지원한 이유다.

"대학 졸업하기 전에 기자단하고 홍보대사 두 개는 꼭 해보리라 마음먹고 있었어요."

임희선 씨 역시 대학생생활 하면서 기자단은 꼭 해보고 싶었다. 게다가 이번 대학생 홍보기자단은 기자단+홍보대사의 형태이니 맞춤형이다.

장세웅 씨는 "전남개발공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지원했다"고 했다.

목표가 '뚜렷' 하다.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손모아 씨는 자

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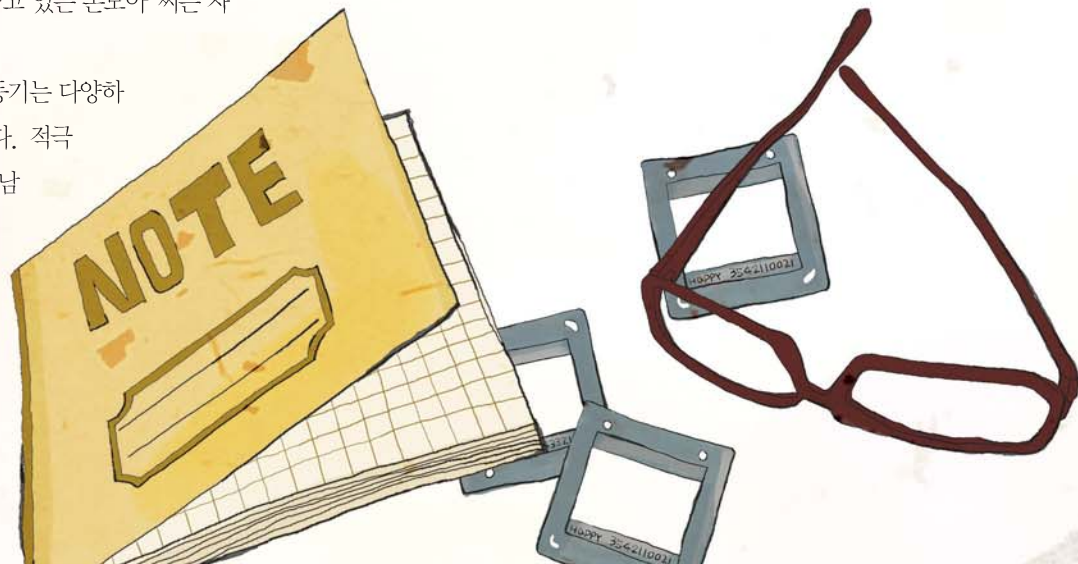
대학생 기자단 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다양하

지만 이들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있다. 적극

성이다. 그 뜨거운 젊은 피들이 전남

곳곳을 알리는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자연은 좋은데, 문화가 아쉽다!

임희선 씨. "기사를 다 쓰고 난 후 블로그에 올릴 때 흐뭇하죠. 블로그도 활성화되고 일반 사람들이 검색을 해가서 접속자 수도 늘어나요."

대학생 기자단 활동을 통해 스스로도 전남과 전남 개발공사에 대해 관심 갖는 계기가 됐다.

"기자단 하기 전에는 전남개발공사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몰랐어요.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전남개발공사에 대해 많이 알게 됐고 전남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기자단 하면서 전에 안보이던 것들도 보게 됐다.

"사실 전남에 살면서도 전남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학생이라 돌아다닐 기회도 적고, 알려지지도 않은 것 같구요. 홍보가 잘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임희선 씨는 홍보의 문제를 지적했다. 손모아 씨는 "자연은 참 좋은데 문화가 아쉽다"고 했다.

각자 느끼는 바는 다르지만 기회가 된다면 전남개발공사에 입사, 홍보와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다는 포부는 같았다. 아이디어도 많았다.

"전남개발공사에 캐릭터가 없는 것이 아쉬웠어요. 또 SNS가 미비한 것도 아쉽구요. 공모전도 많이 하고 이벤트도 많이 하고, 공익 사업으로 이미지 제고에도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용할 사람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니까요." 장세웅 씨의 의견이다.

전남개발공사에 바라는 것도 많았다. 특히 대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전남개발공사 대학생 홍보기자단의 공통된 요구는 이렇다.

"젊은 인재 양성에 힘써주세요~"



10명의 신입사원 '입사기'

열정으로 꿈을 열다!



10명의 동기들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였다. 분위기가 무척 밝다. 만나면 저절로 얼굴에 웃음이 번진다. 2012년 4월 함께 입사한 10명의 동기들. 나이도 성별도 자라온 환경도 모두 다르지만 신입사원 10명은 '동기'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됐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된다.

시작을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다. 특히 이번에 뽑힌 신입사원 10명은 이력들이 모두 독특하다. 저마다 좌충우돌 사연을 가직한 그들의 '입사기'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의 단어를 만나게 된다. 그것은 '열정'이다.



김진일

도전 '나이는 숫자일 뿐'

김진일(40) 씨와 김근영(36) 딱 봐도 나이가 좀 들었다. 두 사람 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다. 둘 다 사기업 경력이 만만치 않다. 진일 씨는 서울의 호텔에서 12년을 근무했고, 근영 씨는 건설회사 경력 9년의 베테랑이다.

무엇이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게 만든 것일까? 진일 씨는 늘 새로운 인생을 꿈꿨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다. 호텔에서 다니며 대학원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쳤다. 매니지먼트 교육과 서비스강사 트레이닝도 받았다. 오랜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나이 40에 공기업의 관문을 뚫었다.

그는 말한다. "사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조금 더 안정된 공간에서 내 꿈을 펼쳐 보고 싶었어요. 꾸준히 준비했고, 그 힘으로 합격했죠."

근영 씨는 지금 경도사업단에서 일한다. 동기들과 떨어져 있는 게 아쉽지만 꿈을 이뤘기에 만족한다. 그의 꿈은 큰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었다. 2010년 3월 전남개발공사 공채에 원서를 냈지만 떨어졌다. 그 해 8월 계약직에 합격해 전남개발공사에 근무하면서 2011년 3월 다시 도전하였지만 또 떨어졌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2년 4월 근영 씨는 극적으로 합격했다.

근영 씨는 하루하루가 빛난다. "건설회사 9년 경력으로 고향 발전을 도모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곳으로 전남개발공사를 낙점했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붙었으니까 다른 동기들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죠."



김근영

우리의 경력은 '고시생'

임시영(38) 씨와 김문정(31) 씨는 성별도 다르고 나이 차이도 상당하지만 여러 공통점이 있다. 두 사람 모두 법대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사법고시를 준비했다. 시영 씨는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에서 번번이 떨어졌고, 문정 씨는 1차의 관문도 넘지 못했다.

시영 씨는 살아온 세월의 거의 절반을 고시공부에 바쳤다. 무려 15년 동안 공부에 빠져 살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는 결국 다른 길을 찾았고, 전남개발공사가 눈에 들어왔다. 15년 법 공부를 거기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결과는 합격, 역시 공부해서 남 주는 건 아니었다. "15년 고시공부를 끝낼 때 심정은 굴 속에서 나온 느낌이었어요. 이제 세상 안에서 열심히 뛰어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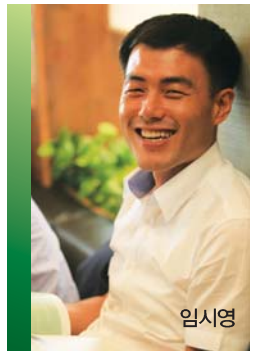
문정 씨가 고시공부로 보낸 세월을 시영 씨에 비해 훨씬 짧다. 3년 6개월 공부를 했고, 접었다. 무엇보다 그는 서울살이에 지쳤다. 따뜻한 정이 살아있는 고향에서 살고 싶었다. 그때 전남개발공사가 눈에 들어왔다. 고향에 살며 고향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은 욕심에 입사시험을 치렀고, 합격했다. "서울살이에 너무 지쳤고, 고향에서 살고 싶었어요. 이제 고시 공부했던 열정을 회사 생활에 다 쏟으려고요."

우리는 '고교 동창생'

윤주일(30) 씨와 염승철(30) 씨는 동기들 중 가장 친하다. 둘은 나이가 같다. 더 놀라운 건 두 사람이 목포고 동기동창이라는 사실이다. 같은 학교를 같은 시대에 나왔지만 사실 둘은 모르는 사이였다. 세상을 돌고 돌아 입사 동기로 다시 만났고, 그때야 둘이 서로 동창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주일 씨는 입사기는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다. 일찍부터 공무원과 공사에 맞춰 취업 준비를 했지만 취업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다. 40곳 정도에 이력서를 냈지만 모두 떨어졌다. 그러다 때마침 고향에 위치한 전남개발공사에서 기회가 주어졌고, 이를 놓치지 않고 도전했다. 합격의 순간 그의 기분은 어땠을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승철 씨는 주일 씨와 조금 다른 방식의 길을 걸었다. 그는 서울에서 대학에 다닐 때부터 8년 동안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했다.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집에 미안한 마음이 생겼다. 나이 서른이 되도록 돈도 못 벌고, 집에 도움이 되지 못한 자신이 무척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직업 진로를 공사쪽으로 바꾸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하루하루 출근이 즐겁다. "집에서 출퇴근을 해서 좋고, 집에 당당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전남개발공사가 제 은인이죠."



임시영



김문정



젊음, "그것은 도전"

구판서(28) 씨와 이진태(28) 씨는 나이가 같다. 그러나 살아온 환경은 완전히 다르다. 여전히 지역감정이 살아있는 나라다. 판서 씨는 경북대를 졸업한 대구 토박이고, 진태 씨는 전남대를 졸업한 광주 토박이다. 심리적 거리가 가장 먼 출신 성분으로 둘은 전남개발공사 신입사원으로 처음 만났지만 금방 친구가 됐다.

판서 씨는 공사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전남개발공사에 입사 지원은 했지만 시험보기 전날까지도 망설였다. 대구 사람이 전남에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낼 자신이 없었다. 사실 주변 친구들도 말했다. 많이 망설이며 시험을 봤지만 그는 결국 붙었다. 사실 합격의 기분도 남들과 달랐다. 뭘 듯이 기뻐던 게 아니라 "만감이 교차"했다. 그러나 이젠 자신의 선택에 아주 만족한다.

"막상 와서 살아보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역감정은 그냥 정치가 만든 것일 뿐이에요. 제가 이제부터 지역감정의 벽을 뛰어버려려고 합니다."

진태 씨는 대학다닐 때부터 공기업에 맞춰 차근차근 스펙을 쌓았다. 높은 학교 성적과 토익점수를 유지했고, 미국으로 8개월 동안 어학연수도 다녀왔다. 착실히 계획을 세웠기에 좋은 결과도 빨리 얻었다.

그는 토목을 전공한 그는 지금 나주 혁신도시 현장에서 일한다. 동기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무척 아쉽다. 진태 씨는 말한다. "본사에서 지내며 동기들과 빨리 친해지고 싶은데 혼자 떨어져 있으니 많이 아쉬워요. 하지만 현장에서 빨리 업무에 적응하니 장점이 있어요."



우리는 '귀염둥이' 막내

박수연(25) 씨와 박은지(25) 씨는 동기들 중 막내다. 둘 다 옛된 얼굴이 귀엽다. 그 어렵다는 공사의 관문을 불과 스물다섯의 나이에 통과했다. 그러나 수연 씨와 은지 씨는 전혀 다른 과정을 거쳐 현재의 자리에 섰다.

수연 씨는 신입사원이지만 전남개발공사와 인연이 무척 깊다. 전남개발공사가 그의 오래된 첫 직장이다. 수연 씨가 전남개발공사에 발을 들인 건 한참 전이다. 인턴생활 10개월 시작해 일용직 1년2개월을 거쳤고, 2012년 4월 신입 공채에 기능직으로 응시해 38대의 경쟁을 뚫고 당당히 합격했다.

그래서 수연 씨의 포부는 남다르다. "세상은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는 것 같아요. 힘들게 전남개발공사가 내 진짜 일터가 됐으니까 인턴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죠."

은지 씨는 인턴활동을 통해 취업의 관문을 뚫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을 평소 좋아하는 은지씨는 공사 취업을 목표로 학업은 물론 인턴활동을 통해 사회경험을 쌓고자 사기업과 공공기관 인턴활동을 했다. 이런 노력은 그대로 나타났다. 스물다섯의 나이에 당당히 전남개발공사의 신입사원이 됐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은지 씨의 첫 느낌을 어땠을까? "여기가 내 평생직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지금 고객맞이팀에서 분양 업무를 맡고 있다. 고객을 응대하며 상담하는 업무인데, 인턴활동을 통해 이미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인지 적응 또한 빠르다. "고객을 만나는 게 편하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고객께서도 예쁘고 상냥하다며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요.^^ 막내의 패기로 힘껏 달릴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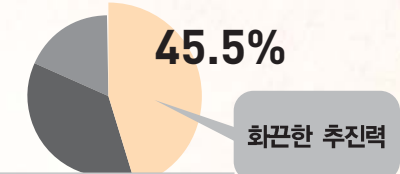


전남개발공사 생각 엿보기 남직원 · 여직원 속마음 '대폭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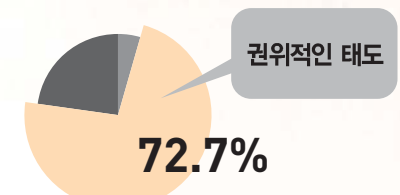
01 남자 동료에게 도움 받고 싶은 것은?

- ① 화끈한 추진력 45.5%
- ② 전체를 장악하는 카리스마 36.4%
- ③ 업무의 치밀함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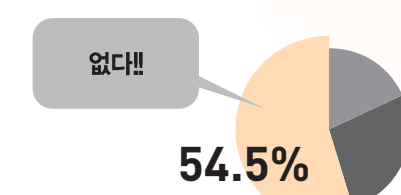
02 남직원이 개선해야 할 점은?

- ① 여자라고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 0.0%
- ②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침없는 말투 4.6%
- ③ 권위적인 태도 72.7%
- ④ 개인위생에 대한 무관심 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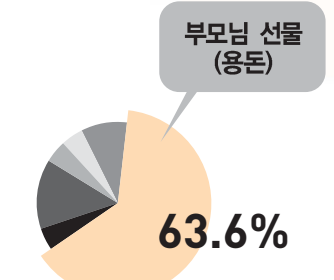
03 남자가 되고 싶을 때는 언제인가?

- ① 커피나 복사 심부름 시킬 때 0.0%
- ② 남자들끼리 밀어주고 당겨줘서 더 잘 나갈 때 18.2%
- ③ 승진에서 남자가 우대받을 때 27.3%
- ④ 없다 54.5%



04 첫 월급을 타서 제일 먼저 사(하)고 싶은 것은?

- ① 명품 가방 4.5%
- ② 이성친구(배우자) 선물 4.5%
- ③ 평소 갖고 싶었던 고급 화장품 세트 0.0%
- ④ 직원들에게 관심받을 수 있는 옷 9.3%
- ⑤ 부모님 선물(용돈) 63.6%
- ⑥ 전자제품 구매 4.5%
- ⑦ 적금 또는 펀드 가입 0.0%
- ⑧ 친구들에게 한턱 쏘기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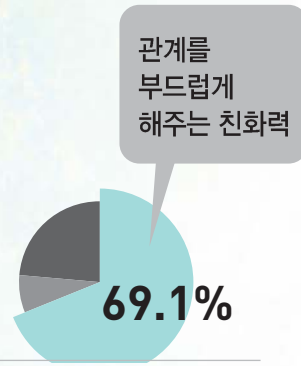


남자 속마음

01

여자 동료에게 도움 받고 싶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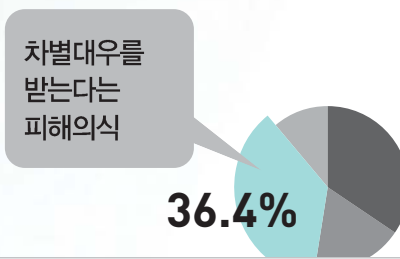
- ① 관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친화력 69.1%
- ② 동료를 감싸는 모습에 7.3%
- ③ 업무의 치밀함 23.6%



02

여직원이 개선해야 할 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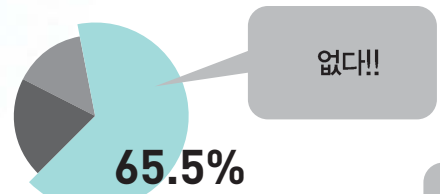
- ① 여자라는 이유로 힘든 일을 피하는 태도 34.5%
- ② 특별대우를 받으려는 태도 18.2%
- ③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피해의식 36.4%
- ④ 업무상 지적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10.9%



03

여자가 되고 싶을 때가 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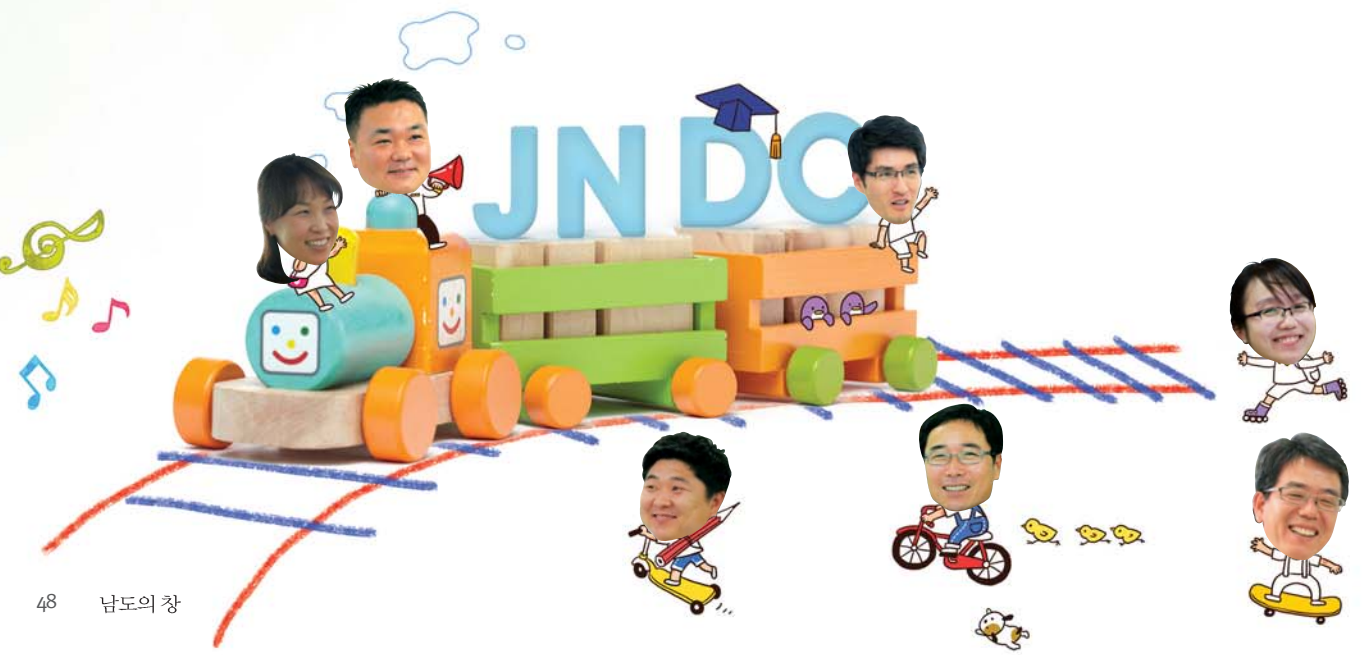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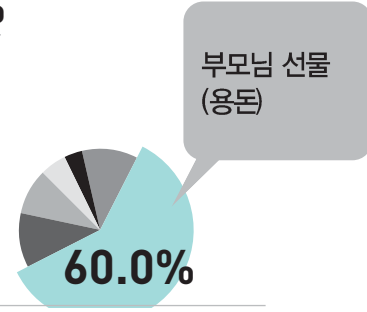
- ① 힘든 일을 남자가 도맡을 때 20.0%
- ② 여자라는 이유로 덜 혼날 때 14.5%
- ③ 승진에서 여자가 우대받을 때 0.0%
- ④ 없다 65.5%



04

첫 월급을 타서 제일 먼저 사(하)고 싶은 것은?

- ① 전자제품 구매 5.5%
- ② 이성친구(배우자) 선물 3.6%
- ③ 직원들에게 관심받을 수 있는 옷 0.0%
- ④ 차량 구매 계약 10.9%
- ⑤ 부모님 선물(용돈) 60.0%
- ⑥ 적금 또는 펀드 가입 10.9%
- ⑦ 친구들에게 한턱 쓰기 9.1%



같은 질문, 다른 속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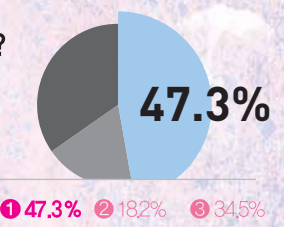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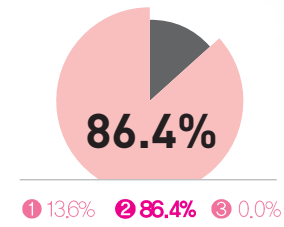
여자

남자

01

남녀 차별은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더 많이 차별 당하는 것 같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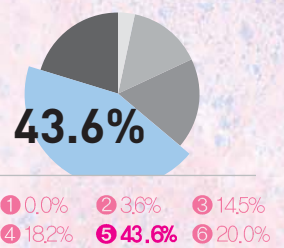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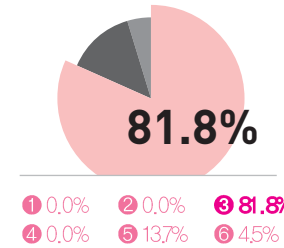
- ① 남자
- ② 여자
- ③ 없다



02

점심 먹고 졸음이 올 때 당신이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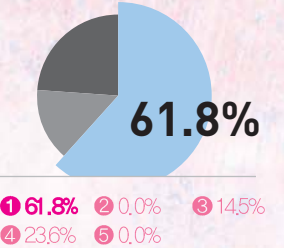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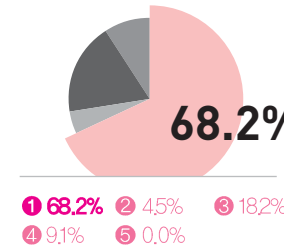
- ① 화장실 번거로움에 앉아 잠시 쉰다.
- ② 은행에 간다며 회사 밖으로 나간다.
- ③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그의 얼음을 씹으며 졸음을 물리친다.
- ④ 정직하게 스트레칭으로 짐을 깬다.
- ⑤ 세수를 하거나 바람 한번 쐬며, 잠을 깬다.
- ⑥ 그냥 쉰다.



03

회식을 빠지고 싶을 때 당신의 거짓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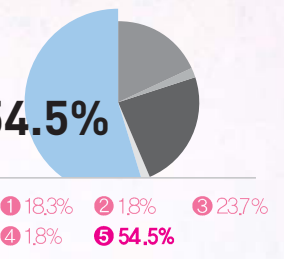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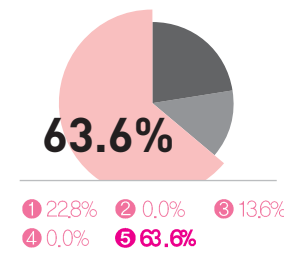
- ① 다른 저녁 약속이 있어서
- ② 집에 제사가 있어서
- ③ 감기기운이 있어서(몸이 아파서)
- ④ 집에 아이가 아파서
- ⑤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04

지각을 했을 때 당신의 변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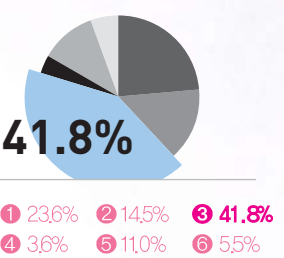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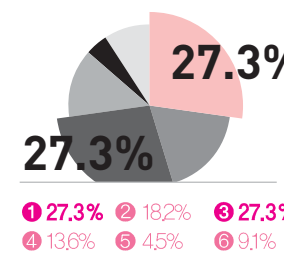
- ① 차가 막혀서
- ② 오다가 접촉 사고가 나서
- ③ 집에 일이 있어서
- ④ 강아지가 집나가서
- ⑤ 그냥 늦잠 잤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05

휴일에 자유시간이 생긴다면 당신은?

- ① 뽕굴뽕 굴방콕하며 TV보기
- ② 하루종일 원 없이 잠자기
- ③ 기분전환 겸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가기
- ④ 쇼핑하기
- ⑤ 영화보기
- ⑥ 친구들과 만나 수다 떨기(술자리 등)



사소한 하루가 모여 행복이 핀다!

“그는 아이들과 항상 장난을 친다. 몸을 사용하며 논다. 아이들과 살을 부비기 위해서다. 잦은 스킨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엮는다.”



그는 쌍둥이 아빠다. 요즘 부쩍 커버린 쌍둥이들을 키우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는 전남개발공사가 벌이는 크고 작은 건축 공사의 감독 업무를 맡고 있다. 일의 특성 때문에 출장이 잦다. 해남 땅끝 호텔 리모델링 공사 때는 3개월 동안 해남에서 먹고 잤다. 어쩌다 하루씩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에게 많이 미안했다. 그래서일 것이다. 쌍둥이 아이들과 살을 부비고 있는 시간이 그는 가장 행복하다.

‘카풀’로 시작하는 하루

정원주(4) 건축사업팀 과장. 그의 하루는 빠르게 시작한다. 집이 광주다. 목포에 있는 회사까지 출퇴근 시간은 최소 1시간 30분. 늦어도 아침 6시10분에는 눈을 떠야 한다. 8월24일, 오늘은 그가 회사 동료의 차를 얻어 타는 일이다.

집결지는 풍암지구, 그는 서둘러 밥을 먹는다. 어느덧 6시40분, 집을 나서야 할 시간이다. 쌍둥이들은 아직 곤한 잠에 빠져있다. 그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에 손을 한 번 갖다 대고는 집을 나선다. 택시를 잡아타고 풍암지구 도착하면 7시10분. 카풀을 하는 3명의 직장 동료와 만나 목포로 출발한다.

차는 쉽 없이 달린다. 회사에 도착하면 8시10분. 적당한 시간이다. 그는 9층까지 계단을 걸어서 올라간다. 매일 아침 출근은 계단을 이용한다. 건강에도 좋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서다. 사무실에 올라



오면 자리에 가방을 놓고 ‘체력단련실’로 올라간다. 그는 매일 아침 윗몸일으키기를 30회 반복한다. 남자의 품격은 나오지 않은 뺨살에서 완성된다.

건물이 지어지는 모든 과정에 관여

8시30분,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된다. 먼저 회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 자료를 꼼꼼히 챙겨본 뒤 현장의 작업 상황을 체크한다. 오늘의 공정과 작업내용을 파악해 ‘작업일보’를 작성하기 위해서다. 그는 현장의 감독이고, 하나의 건물이 지어지는 모든 과정에 그의 손길이 닿는다. 건물의 설계 용역 발주부터 건물이 지어지는 모든 과정에 관여한다. 시공을 하면 시공 단계별로 검측을 하고, 착공 인·허가까지 그가 담당한다.

본사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현장으로 출발한다. 현장에 도착하면 오후 1시, 그는 먼저 서류를 검토한다. 도면을 검토하고 시방서를 본 뒤 검측을 한다. 곧 건물의 바닥 타일을 깔아야 하고, 오늘까지는 바닥재를 결정해야 한다. 바닥재는 재질과 특성에 따라 수천 가지가 있다. 건물의 특성에 맞는 적당한 바닥재를 고르는 게 쉽지 않다.

오후 4시 현장 점검을 끝내고, 하루 일의 진행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서류작업을 시작한다. 작성해야 할 서류가 한두 개가 아니다. 그는 지금껏 전남개발공사의 수많은 건설 현장을 감독했고, 그가 작성한 서류가 여러 개의 캐비닛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그는 그 서류들을 꼼꼼히 관리한다. 그가 지나온 시간이 그 서류들 안에 모두 잠들어 있기 때문이다.

쌍둥이들과 매일 살을 부비는 행복

그는 퇴근이 일정하지 않다. 현장의 일이 많으면 대개 9시50분 막차를 탄다. 다행히 오늘은 남들과 똑같은 퇴근시간을 맞췄다. 오후 6시 40분에 퇴근을 해 집에 돌아오니 8시가 훌쩍 넘었다.



그는 맞벌이 부부다. 집에 오면 늘 가사 일은 돕는다. 청소와 설거지는 늘 그의 몫이다. 저녁밥을 먹고 나면 그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찾아온다. 쌍둥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이다. 그는 아이들과 항상 장난을 친다. 몸을 사용하며 논다. 아이들과 살을 부비기 위해서다. 잦은 스킨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엮는다.

그는 쌍둥이들과 함께 있을 때 삶의 의미를 느낀다. 주말이면 항상 아이들과 함께 무등산 증심사 계곡을 찾는다. 편백나무 숲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 아이들과 함께 숲에 있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세상이 살아볼 만하다고 느껴진다.

9시쯤 쌍둥이들을 재운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침대에 누워 책을 읽어준다. 20분 정도 지나면 아이들이 곤하게 잠이 든다. 그 때 비로소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자정쯤 그 역시 잠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어쩌면 그의 하루는 사소하다. 그러나 그 사소함이 모여 일생을 이루고, 모두의 행복이 핀다.

정원주 건축사업팀 과장





“내 꿈은 설득의 달인”

고객맞이팀 신창석 과장

그는 전남개발공사의 최전방에 있다. 찾아오는 고객들을 제일 먼저 맞는다. 특히 민원 고객의 경우 얼굴은 굳어있고 목소리가 높다. 기쁨은 고객의 입에서 욱설도 튀어나온다. 고객맞이팀 신창석(40) 과장은 그 민원 고객을 무장해제 상태에서 맞는다. 고객은 왕이고, 배려만이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원 고객은 무언가 불만이 있다. 앞도 뒤도 없이 막무가내로 요구 사항부터 쏟아낸다. 신 과장은 고객의 말을 차분히 듣는다. 같이 흥분



하면 고객과 싸우자는 말 밖에 안 된다. 그리고 먼저 고객의 심경을 마음으로 공감한다. 그 다음부터 설득이 시작된다.

“제 일은 설득이에요. 저는 고객과 처음 만나는 회사의 얼굴입니다. 화가 난 고객을 잘 설득해서 화를 풀어주는 게 제 일이죠. 고객에게 항상 공감

하고 있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럼 고객이 저를 믿게 되요. 그 다음에 차근차근 설득을 해요. 분양 고객 응대도 다르지 않아요. 고객을 설득해서 개발된 토지를 사게 해야 저도 살고, 회사도 살죠. 그래서 제 꿈은 ‘설득의 달인’입니다.”

신 과장은 요즘 고민이 많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잠을 설치는 날이 태반이다. 그가 맡고 있는 분야는 산업단지 분양이다. 경기가 좋지 않아 분양 실적이 저조하다. 실적 개선하기 위한 온갖 방법을 고민해 보지만 마땅히 떠오르는 묘안이 없다.

“사실 산업단지 분양은 산업 경기가 풀리지 않는 한 별다른 대책이 없어요. 답 없는 답을 구하려고 하니 깊어지는 것은 고민이고, 나오는 것은 한숨이예요.”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다. 없는 것도 기어코 찾아내야 한다. 전남개발공사의 수익 기반은 거의 대부분 토지 분양을 통해 마련된다. 올해 분양실적도 ‘택지개발지구’ 들은 목표치를 초과했다. 만약 산업단지 분양만 잘 된다면 회사의 앞날은 탄탄대롭다. 답을 내기 위해 그는 늘 공부한다. ‘개발사업동호회’ 활동을 통해 꾸준히 정보를 얻고, 분양과 관련된 책들도 꼼꼼히 읽는다.

고민의 끝에 하나의 방안이 매달렸다. ‘찾아가는 서비스’다. 후반기부터는 앉아서 고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찾아다니는 계획이다. 먼저 전남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한 기업들을 찾아다니는 생각이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안 오니까 직접 고객을 찾아다니는 생각이예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다 보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분양의 길이 더 넓어지겠죠.”

‘드라이브 샷’, 골프의 기본! ‘남악골프클럽’ 정승연 프로가 전해주는

‘드라이브 샷’ 노하우

‘드라이브 샷’은 골프의 기본이다. 정확한 임팩트가 이루어졌을 때 긴 샷거리와 원하는 구질을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스윙 시작부터 끝까지 스윙축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대로 된 ‘드라이브 샷’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이 필요할까? ‘남악골프클럽’ 정승연 프로는 “스윙이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볼에서 눈을 떼지 않고 척추가 하나의 중심 기둥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전한다.



1 머리를 아래로 떨어뜨리지 마라!

헤드업은 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스윙 중 날아가는 볼을 보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거나 머리를 드는 헤드업은 정확한 타격을 방해한다. 드라이버 샷은 강한 파워를 필요로 한다. 머리가 땅으로 떨어지거나 돌렸다면 이미 볼을 맞기 위한 스윙궤도를 벗어난 것이다.

2 어깨를 고정시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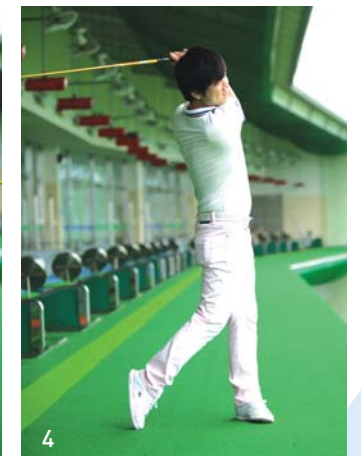
다운스윙 중 오른 어깨가 밑으로 쳐지거나 볼을 향해 앞으로 나가는 동작이 생기면 헤드 중심에 정확히 맞추지 못한다. 오른 어깨가 밑으로 떨어지며 스윙궤도가 볼 뒤로 바뀌면서 뒤땅이나 토핑을 유발한다. 반대로 어른 어깨가 앞으로 나아가면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려 헤드의 힐쪽에 볼이 맞는다.

3 높낮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라!

스윙을 할 때 몸의 높낮이가 변하면 미스샷의 원인이 된다. 원인은 하체를 너무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것. 샷거리 향상을 위해 체중이동을 과도하게 하면 하체가 많이 사용되고, 이 과정에서 무릎의 높낮이가 변한다. 어드레스 때 만들어진 높이를 그대로 유지해야 정확한 샷을 구사할 수 있다.

4 스윙궤도는 이상이 없는가?

헤드의 토에 볼이 맞는다면 다운스윙 때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아웃 스윙궤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스윙궤도 수정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몸의 중심을 잡는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을 할 때 볼을 세게 때리기보다 천천히 휘둘러 자연스럽게 스윙궤도를 만들어야 한다.



다이어트에 관한 10가지 거짓말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는 폭식의 지름길이고, 잠깐살이 빠져도 '요요현상'을 피하기 어렵다. 먹으면서 빼는 다이어트가 진짜다. 이 나라의 거의 모든 여성들은 1년 365일 다이어트 시즌이다. 그러나 '다이나마이트'처럼 살이 자체 폭발해 주기를 바라지만 체중계의 저울은 자꾸 올라간다.

매일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 잘못된 다이어트 습관이 오히려 살을 찌우는 것. 다이어트에 관한 오해와 진실, 알면 살이 썩 빠지는 정보다.

01 원푸드 다이어트로 단기간에 살을 뺄 수 있다?

한 가지 음식만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이런 영양의 부족현상을 비상사태로 생각하게 되고 위험에 대비한 방어자세를 취하게 된다. 우리의 몸은 영양부족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신진대사를 줄이고 근육을 소비하게 되면서 다이어트의 주목적인 체지방을 오히려 늘리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



02 레드 와인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레드 와인? 한마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드 와인을 얼마만큼 마시느냐이다.

영국의 빅토리아왕가 박사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세 잔 이상 레드 와인을 마시는 사람이 비만이 될 확률은 무려 46%에 달한다. 레드 와인 한 잔은 약 125kcal정도이며, 레드 와인에 포함된 당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03 다크 초콜릿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최근 유행하는 다크 초콜릿이 일반 초콜릿에 비해 살이 덜 찌는 것은 사실이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매스함량이 최고 99%인 다크 초콜릿에는 일반 초콜릿에 들어가는 분유나 설탕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다크 초콜릿 100g이 약 500kcal나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데다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될 수 있다.



04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 살이 안 찐다?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찌는 건 분명한 사실. 그렇다고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 살이 안 찌는 건 아니다. M비만클리닉 전문의에 따르면 "다이어트를 위해선 칼로리 뿐만 아니라 당 지수도 고려한 균형 있는 식사를 해야 한다."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지방 합성을 촉진하는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키며 쉽게 살이 찌게 만든다.

05 무조건 굶으면 단기간에 살을 뺄 수 있다?

단기간에 쉽게 살을 빼는 방법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굶는 것으로 단기간 체중 감량에 성공하지만 사실은 지방과 함께 근육도 감소시키는 방법인 오히려 몸에 해를 끼치는 다이어트 방법이다. 또한 수분감소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06 블랙커피는 다이어트에 무조건 도움이 된다?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다. 하지만 시중에서 스틱 형태로 판매되는 블랙커피 중 상당수에 설탕이 포함되어 있다. 설탕의 높은 칼로리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다이어트를 위해 커피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설탕이 전혀 없는 블랙커피를 마시도록 하자.



07 제로콜라는 아무리 많이 마셔도 살이 안 찐다?

콜라 한 캔에 포함된 설탕은 26g, 100kcal가 조금 넘는다. 제로 콜라엔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이 사용되는데 1g은 일반설탕 200g의 효과를 낼 정도로 단 맛이 강하다. 그렇다면 정말 제로 콜라를 마시면 살이 하나도 안 찌는 걸까? 비만클리닉 전문의에 따르면 "인공감미료는 오히려 다른 음식에 대한 식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단맛에 대한 내성이 생겨 단 음식을 많이 찾게 된다."라고 말한다. 0kcal라고 해서 그동안 제로 콜라를 물처럼 마음 놓고 마셨다면 지금 이리도 당장 멈출 것.



08 현미는 백미보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현미가 건강에 좋은 것은 사실이다. 섬유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쌀의 겨와 쌀눈을 제거하지 않은 현미를 먹으면 소화가 느리게 진행되어 내장 지방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하지만 백미보다 칼로리가 낮은 것은 아니다. 백미 1공기(210g)는 313kcal, 현미 1공기는 321kcal,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현미가 칼로리가 조금 더 높다.

09 내가 원하는 부위의 운동을 하면 그 부위의 살이 빠지는 것이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부위별 운동법을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곳의 살을 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운동을 통해 다이어트 효과를 보려면 허벅지나 복근 등 몸의 큰 근육을 위주로 한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 그 다음 팔이나 다리 등 작은 근육을 추가적으로 운동함으로써 근육을 올베르게 키울 수 있는 것이다.



10 과일은 살이 찌지 않으므로 배블리 먹어도 된다?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인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상식. 그런데 밥이나 빵을 덜 먹으면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과일의 주성분 역시 탄수화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러나 다이어트 중이라면 과일 역시 양을 조절해 가며 먹을 필요가 있다.

JNDC & NEWS

NEWS • 01

설맛이 따뜻한 온정 나누기 '훈훈'

김주열 사장을 비롯한 전남개발공사 임직원 10여명이 참여한 '나눔이봉사단'은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소재 '강진자비원 (원장 박정애)'을 방문, 영화상영 및 삼겹살 파티, CEO의 희망 메시지 전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40여명의 아이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NEWS • 02

결손가정 후원 '휴먼 멘토제' 활동

전남개발공사가 지역 내 결손가정 아이들과 결연을 맺고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후원활동을 벌여 나가기 위해 '휴먼 멘토제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3세대 총 7명의 초·중학생들을 선정, 매달 일정액의 학습비 지원을 비롯하여 교복 구입, 의료비 지원 등의 경제적 후원과 여직원을 중심으로 한 멘토단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학습 지원 등 정서적 멘토 역할을 실시하고 있다.



NEWS • 03

김주열 사장 장성 문향고 특별강연

김주열 사장이 5월30일 장성아카데미에서 장성 문향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생각과 행동'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가졌다. 장성 문향고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강연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재능나눔경영' 실천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NEWS • 04

황금닭마을에서 구슬팜

전남개발공사 임직원들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마을을 찾아 구슬팜을 즐겼다. 김주열 전남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해 임직원 20여명으로 구성된 '나눔이 봉사단'은 1박 2일 동안 강진군 황금닭마을과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고 고추 따기, 황금초 캐기, 닭장 청소·모이주기 등 부족한 마을 일손을 도왔다.



NEWS • 05

지방자치경연대상 특별상 수상

전남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월22일 열린 '2012 광주·전남 지방자치경연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NEWS • 06

소외지역 찾아 '재능나눔' 실천

전남개발공사, 목포한방병원, 광주중앙미용학원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강진군 사초마을 150여명 주민들을 찾아 '재능나눔'을 실천하고자 한방 의료봉사, 머리와 손톱 손질, 영정·커플사진 촬영, 전기수리 등의 봉사활동과 품바공연, 노래자랑 등의 위안공연을 펼쳤다.

세계인의
스피드축제 **F1** 질주!!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

10.12~10.14 / 전남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티켓판매처 : 옥션티켓, 공식홈페이지(www.koreangp.kr) / 콜센터 : 1588-3448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

2012 대회일정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 티켓가격

“레저스포츠와 어우러진 첨단 자동차산업 중심지 도약”

- ▶ 대회명 : 2012 포물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 ▶ 기간 : 2012년 10월 12일(금)~10월 14일(일)
- ▶ 장소 :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전남 영암)
- ▶ 참가규모 : 12개팀 선수·임원 4,000여명, 관람객 16만명

10월 12일 **금요일** 연습주행 I 10:00 ~ 11:30, II 14:00 ~ 15:30

▶ 서킷 첫 연습주행(주전 외 Test 드라이버)도 참가 가능

10월 13일 **토요일** 연습주행 III 11:00 ~ 12:00, 예선 : 14:00 ~ 15:00

10월 14일 **일요일** 결승전 15:00 ~

▶ 예선 성적에 따라 배정된 출발 라인업에 정렬 / 3m 간격으로 잇길러 출발
▶ 레이스 1위부터 10위까지 드라이버 각각에 25 / 18 / 15 / 10 / 8 / 6 / 4 / 2 / 1점 부여
▶ 상위 1~3위 시상(우승 드라이버 국기 제양 및 국가 연주 / 우승팀 국가 연주)

등급	좌석명	전일권	일요일	토요일	금요일
R	메인그랜드스탠드	890,000	720,000	340,000	20,000
S	그랜드스탠드 A	600,000	480,000	260,000	15,000
A	그랜드스탠드 B~J,L	-	120,000	80,000	10,000